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효명세자 입학례에 근거한  
초등학교 입학식 연구

2022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손진선

효명세자 입학례에 근거한  
초등학교 입학식 연구

주 영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손진선


# 인 준 서

손진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최 배 영 (인) 

심사위원..... 김 호 주 (인) 

심사위원..... 주 영 애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논문 개요

배움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입학식은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의례이다. 가족생활에서도 입학의례는 매우 중요하다. 가족은 ‘배움’의 시작인 입학식을 하는 자녀는 물론이고 배우자나 친척이 입학식을 하는 경우, 그 의식에 참여하고, 덕담과 선물을 보내며 축하를 전달한다. 이러한 입학식이 전통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각 입학식의 형태나 절차는 한국문화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한국문화의 바탕 위에 입학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입학식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에서 진행된 각 의식과 절차의 의미에 대해 문헌고찰을 하고, 현재 초등학교 입학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면접과 국내외 입학식 사례조사를 병행하여 향후 ‘왕세자 입학례’를 모티브로 한국문화가 갖는 초등학교 입학식 모형을 제안하여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입학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교사와 학교 현장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고찰과 실태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문헌고찰은 순조 17년(1871년)에 제작된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례를 보여주는 《왕세자입학도》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입학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寶書禮)』, 『대학지(太學志)』, 『문효세자보양청계병(文孝世子補養廳契屏)』, 『춘관통고(春官通考)』, 『왕세자입학도첩(王世子入學圖牒)』, 『상변통고(喪變通攷)』, 『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초등학교의 입학식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국내외의 입학식은 인터넷매체를 통해 사례조사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유일하게 입학례를 그림으로 담은 효명세자의 《왕세자입학도》는 의례 순서에 따라 6폭의 그림과 함께 스승이 남긴 글, 참여자들의 축하 시(詩)로 구성되었다. 《왕세자입학도》에는 창경궁 홍화문을 나와 동궁을 출발하여 성균관으로 이동하는 <출궁의(出宮儀)>를 시작으로, 성균관 도착 후 대성전(大成殿)에서 공자를 비롯해 4명 성인을 모신 신위에 술잔을 올리는 예 <작헌의(酌獻儀)>, 대성전에서 명륜당(明倫堂)으로 이르러 박사에게 배움을 청하는 <왕복의(往復儀)>, 청을 받아들인 박사에게 예물을 드리는 <수폐의(脩弊儀)>, 왕세자는 명륜당에서 박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입학의(入學儀)>, 마지막 절차는 이 모든 의례를 순조롭게 마치고 궁으로 돌아와 관원과 종친에게 축하받는 <수하의(受賀儀)> 이렇게 여섯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왕세자의 모습을 직접 그려내지 않았다. 《왕세자입학도》에 나타난 특징은 첫째, 각 절차가 공간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공간이 주는 의미에 따라 의례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극대화한다는 점, 둘째 왕세자가 의례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체감하도록 한다는 점, 셋째 제자인 왕세자가 스승에게 배움을 청해서 사제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위나 신분을 떠나 사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순리를 나타낸다. 넷째 입학례가 끝나고 서로 나누는 축하 의례가 펼쳐진다는 점이다. 입학식에 관한 면접 및 사례조사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학식은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협의와 계획하에 준비하여 실행되는 절차에서 각 학교의 특성이 나타났다. 입학식 형식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입학식 의미와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낯설고 어색한 학교 환경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학교는 즐거운 곳이므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입학 허가의 승인 절차를 통해 학생의 자격이 부여된다. 요즘 입학식은 엄숙하고, 정형화된 입학식의 분위기에서 변화되어 가족과 선배, 선생님께서부터 축하와 더불어 학교마다 특별한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학식보다는 졸업식 의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입학은 미래를 지향하는 입문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희망을 담는 깊은 뜻이 있으므로 배움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입학식에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독일 등 각 국가도 관습적인 의례가 입학식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학식에서는 그 의미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선조들의 ‘왕세자 입학례’를 모티브로 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갖는 우리 고유의 입학식 모형이 개발되고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문화가 갖는 입학식 모형은 ‘왕세자 입학례’에서 나타난 입학식의 장소와 이동, 입학식 복식, 사제관계 형성, 축하례 등에서 그 의미와 상징성을 반영하고, 현재 시행되는 입학식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개선안을 반영하여 새로운 모형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모색하였다. 입학식에서는 ‘배움을 청하는 예’와 ‘진다례’, ‘의관을 갖춘 한복 착용’ 도입을 강조하며, 적용 가능한 입학식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개회식 및 국민의례--> 작헌의례(세수의식)--> 왕복의례(청원서 낭송 및 입학 승인)--> 속수의례(진다례)--> 입학의례의식(스승과 학생 명심보감 낭독)--> 수하의례(스승께 큰절의 예)--> 축하의례 및 교가 제창 후 폐회 순서이다.

입학식은 미래지향적이며, 성장을 향한 첫걸음인 뜻깊은 교육의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왕세자 입학식의 절차와 의미를 도입한 한국문화가 반영된 초등학교 입학식 모형을 제안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며, 향후 한국문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입학식 모형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5
1) 문헌연구 .....	6
2) 실태조사 .....	8
3. 용어의 정의 .....	12
II. 왕세자 입학례에 관한 고찰 .....	15
1. 왕세자 입학례의 의의 .....	15
2. 왕세자 입학례의 기록 .....	18
1) 왕세자들의 성균관 입학례 .....	18
2) 효명세자의 왕세자 입학례 .....	23
3. 선행연구 .....	42
III. 입학식에 대한 면접 및 사례 .....	48
1. 초등학교 입학식에 대한 교사의 견해 .....	48
2. 초등학교 입학식에 대한 학부모의 견해 .....	54
3. 국내외 학교의 입학식 사례 .....	60

IV. 왕세자 입학례에 근거한 초등학교 입학식 제안 .....	71
1. 사제관계를 맺는 절차의 재고 .....	71
2. 입학식을 위한 예복 착용 .....	73
3. 입학식의 축하 의례 .....	76
4.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 모형 .....	78
V. 결론 및 제언 .....	84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초등학교 교사대상 면접 일시 및 조사방법 .....	9
<표 2> 학부모 면접대상자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	10
<표 3> 국내외 학교 입학식 조사 일시 및 조사방법 .....	11
<표 4> 조선시대 입학례 기록 .....	20
<표 5> 실록에 기록된 입학례 .....	22
<표 6> 효명세자 입학례 관련 화첩의 소장처와 명칭 .....	24
<표 7> 《왕세자입학도》 절차별 장소 .....	39
<표 8> 입학례의 장소와 절차에 따른 왕세자의 복식 변화 .....	40
<표 9> 왕세자 입학례와 현대 초등학교 입학식 연구 및 관련 서적 .....	46
<표 10> 《왕세자입학도》와 현대 입학식 절차 비교 .....	72
<표 11> 왕세자 입학례에 근거한 현대 입학식의 사례분석 비교 .....	73
<표 12>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 모형 .....	82

##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과정 흐름도 .....	5
<그림 2> ≪왕세자입학도≫ <출궁의> .....	26
<그림 3> ≪왕세자입학도≫ <작헌의> .....	30
<그림 4> 성균관 동삼문 .....	30
<그림 5> ≪왕세자입학도≫ <왕복의> .....	31
<그림 6> 태학계첩 명륜당 .....	31
<그림 7> 현재 성균관 배치도 .....	31
<그림 8> ≪왕세자입학도≫ <수폐의> .....	34
<그림 9> ≪왕세자입학도≫ <입학의> .....	36
<그림 10> ≪왕세자입학도≫ <수하의> .....	38
<그림 11> 무주 설천초등학교 입학식 .....	61
<그림 12> 남평중학교의 특별한 입학식 .....	62
<그림 13> 2021 함평영재교육원 전통입학식 .....	64
<그림 14> 서울 지구촌학교 개교식 및 입학식 .....	65
<그림 15> 일본 입학식(헤키찬소학교) .....	66
<그림 16> 중국 난징부자묘초등학교 전통입학식 .....	67
<그림 17> 독일 입학식(그룬트슐레) .....	68
<그림 18> 전복 .....	75
<그림 19> 전복 입은 학생과 스승 .....	75
<그림 20> 쾌자 .....	76
<그림 21> 오방장두루마기 .....	76
<그림 22> 오방장두루마기 .....	76

<그림 23> 이태원초등학교 입학식 풍경 .....	77
<그림 24> 한국문화를 반영한 입학식 모형 예시 .....	8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배움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입학식은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중·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의례이다. 가족들의 삶에서도 입학 의례는 매우 중요하다. 가족 구성원은 ‘배움’을 시작하기 위한 입학식을 하는 자녀는 물론 배우자나 친척이 입학식을 할 때도 그 의식에 참여하여 덕담과 선물을 보내며 축하한다. 이러한 입학식이 전통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의 입학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각 입학식의 형태나 절차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반영한 특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한국문화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입학식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왕세자의 입학례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고, 그 형태와 절차 중에서 현대 입학식에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유교(儒敎)를 바탕으로 세워진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적으로 고려 불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교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문화가 정치 권력의 변화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확립하고, 국가의 안정과 유교 문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가의 의례(儀禮)인 길례(吉禮), 가례(嘉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흉례(凶禮)의 오례(五禮)에 관한 예제(禮制)를 갖추고, 예서(禮書)를 편찬하였다.<sup>1)</sup> 왕과 왕위를 계

1) 한형주, 朝鮮 世宗代의 古制研究에 對한 考察, 역사학보 136, 1992, p.120.

승하는 자는 물론 모든 왕실 사람은 모두 유교적 실천에 모범을 보여야 했다. 다시 말해 조선 왕실은 당시의 문화와 사회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영역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왕실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 왕과 왕세자에 대한 기록을 주목해 보았다.

오늘날 조선 왕실의 문화는 영화나 연극은 물론 재현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현대인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문화원형에 대한 발굴과 개발, 활용의 파급효과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2년부터 꾸준히 문화원형을 자료화하고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sup>2)</sup> 이런 의미에서 왕세자 입학례에 관한 연구는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왕세자는 왕위에 오르기까지 책례, 입학례, 관례, 가례 등 여러 가지 의례 절차를 거친다. 의례 기록 중에 유일하게 도첩으로 남아 있는 사료인 《왕세자입학도》에는 순조 17년(1871년)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과정을 기록하였는데, 효명세자가 교육을 받기 위해 성균관에 입학하고 스승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을 그림으로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왕세자입학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왕세자입학도》의 기원과 왕세자의 생애, 교육을 받으면서 행하는 의례(儀禮), 복식, 제작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왕세자작헌문선왕입학의(王世子酌獻文宣王入學儀)와 왕세자입학의(王世子入學儀)에도 왕세자 입학례에 관한 기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명세자의 《왕세자입학도》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입학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대학지(太學志)』, 『문효세자보양청계병(文孝世子補養廳契屏)』, 『춘관통고(春官通考)』, 『상변통고

2) 손윤혜, 조선후기 왕세자 입학례 복식고증,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10.

(喪變通攷』, 『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을 고찰하여 왕세자 입학례의 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통해서 전통사회의 왕세자 입학례의 형식과 절차 등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살리고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을 모색하는 근거로 삼으려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여 국가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는 것이므로 학업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의례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성장했음을 축하하는 졸업식 교육의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졸업식 못지않게 입학식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의례가 되도록 함이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입문 과정을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변화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식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옮겨 가는 것이며, 제도적 교육의 장(場)으로 흡수되는 중요한 의례이다. 입학식의 목표는 기쁘고 반가움으로 신입생을 맞이하고 처음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다짐하도록 하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새로운 학교환경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한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학교 교육에 대한 방침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입학식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대표적 행사이며 입학자의 인성 함양과 자아정체성 형성을 돕는다는 것에 교육적 의의가 있다. 즉 입학자는 입학식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에 소속하는 자신의 위치를 비로소 자각하게 된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입학식의 순서는 개식사-국민의례-신입생 입학 허가 선언-학교장 말씀-학급담임 및 교직원소개-선·후배인사-선물 및 기념품 전

달-교가제창-폐식사<sup>3)</sup>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식전 행사로 공연과 마술 등 신입생을 위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운동장에서 행했던 입학식은 요즘에는 대부분 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대 상황에 따라 입학식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입학 선언과 입학 허가는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학식은 질서와 규칙, 어울림, 양보, 배려, 칭찬, 존중 등을 익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sup>4)</sup>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나’ 중심적인 생활을 했다면 입학은 통해 ‘단체’에서 어울리는 ‘나’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친구들과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익혀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학식보다는 과정을 마감하는 졸업식의 교육적 의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입학은 미래지향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희망을 담는 뜻깊은 것이다. 배움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입학식’의 의미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 등 다른 나라도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의례가 입학식에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앞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왕세자 입학례’에 근거하여 한국의 전통문화가 깃든 우리 고유의 입학식 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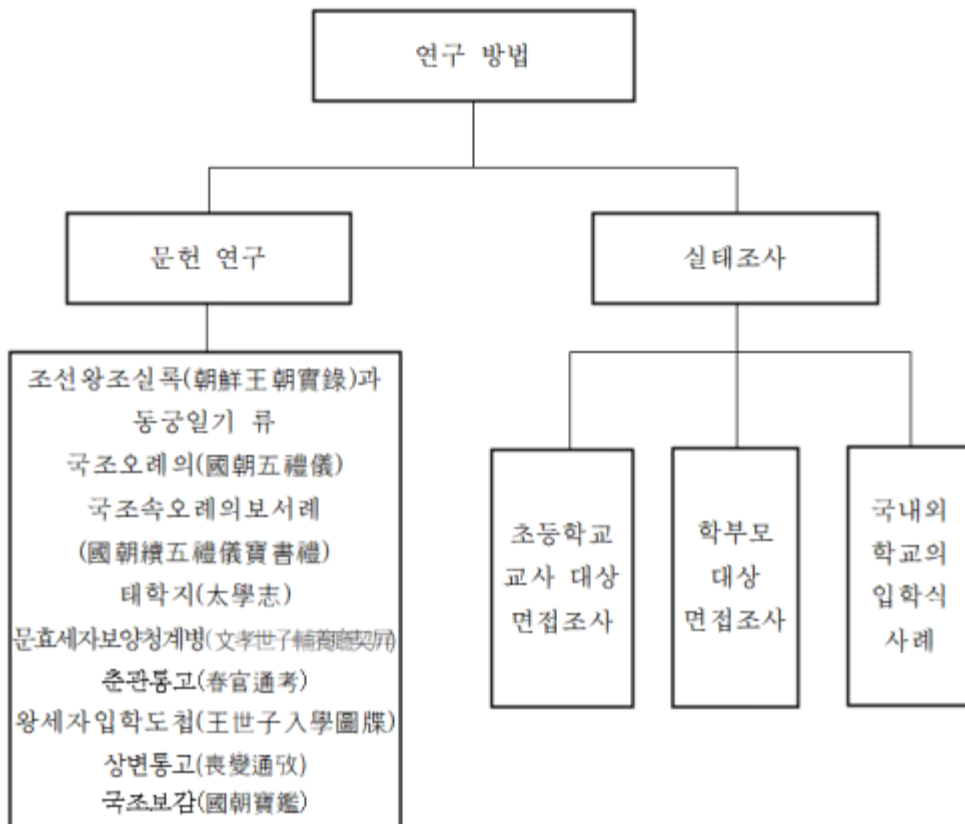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의 절차와 의미를 고찰하고, 현재 초등학교 교육의례인 입학식의 실태를 조사하여 ‘왕세자 입학례’를 모티브로 한국문화가 깃든 초등학교 입학식 모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입학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이영철, 초등학교 학교행사의례의 교육적 의미 : 인천광역시교육청 우리학교알림방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p.55.

4) 이영철, 앞의 논문, p.55.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 모형 예시를 구안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보서례, 태학지, 춘관통고, 효명세자 왕세자입학도첩, 상변통고, 국조보감을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하고, 실태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대상 면접조사, 국내외 입학식 사례조사,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과정 흐름도

## 1) 문헌 연구

입학례는 ‘입학이치(入學以齒)’의 내용이 담겨있는 『예기(禮記)』의 왕제(王制) 문왕세자(文王世子)편, 당(唐)의 『통전(通典)』의 자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세종조 때부터 왕세자 입학례에 관한 기록이 저술되기 시작하여 성종 5년(1474년)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吉禮)편과 가례(嘉禮)편에 각각 기술되었다.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禮)』는 1751년 반포된 내용으로 왕세손 입학시 익선종관은 강서원의 관원으로 하고 박사는 예문관의 제학으로 하며 다른 의식은 왕세자 작런입학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있다. 정조 9년(1785)에 편찬된 『태학지(太學志)』는 성균관의 내력과 상황을 정리한 책으로 조선 후기의 입학례 관련 문헌 자료이며, 절차와 복식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보다 좀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태학지(太學志)』는 태학 곧 성균관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1785년(정조 9) 왕명으로 성균관 대사성 민중현이 편찬한 14권 14책의 필사본이다. 그중 권4에 왕세자작헌입학(王世子酌獻入學)조에 왕세자의 입학례 절차를 11개 과정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sup>5)</sup> 이외에 정조 12년(1788)에 편찬된 『춘관통고(春官通考)』<sup>6)</sup>, 조선왕조실록과 동궁일기 류 등에 기록된 입학례도 함께 고찰한다.

『상변통고(喪變通攷)』는 1830년 유장원(1724~1796)의 후손이 『가례』의 체제에 따라 기술한 30권 16책이다. 특히 「학교례(學校禮)」에 왕세자의 입학례에 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상변통고에는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 반드시 공자를 예우하여 제사를 지내야 함을 기술했다. 절차로 작헌(酌獻)과

5) 성균관의 제도, 교과, 학생 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1785년 민중현이 왕명에 의해 편찬했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6) 『춘관통고 [春官通考]』 1788년경에 유의양이 왕명을 받아 1788년(정조 12)경 유의양(柳義養)이 왕명을 받아 『춘관지(春官志)』·『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등을 바탕으로 예조(禮曹)가 관장하는 모든 예제와 예무를 길(吉)·가(嘉)·빈(賓)·군(軍)·흉(凶)의 오례로 나누어 총정리, 편찬한 책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입학(入學)에 대한 기록이 실려있다.

동궁일기 등에는 왕세자의 성장과 교육은 물론 관례(冠禮), 책례(冊禮), 입학례(入學禮), 상견례(相見禮) 등의 각종 의례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자의 입학례 등의 의식 준비과정, 절차 등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입학례를 할 때 먼저 입학례에서 진강(進講)할 책자를 결정하여 그 책자를 강습하는 한편 습의(習儀)를 행했다.<sup>7)</sup>

『국조보감(國朝寶鑑)』은 1909년에 편찬되었는데, 조선 역대 왕의 업적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사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영조 37년(1761) 왕세손의 입학례에 관한 기록이 실려있는데, 작헌례를 마치고 난 후부터 기록되어 있다.<sup>8)</sup>

《왕세자입학도첩》은 순조 대 이전 책례와 관례는 그려졌으나 입학례는 처음 제작되었다는 점, 제작 주체의 성격과 남공철 발문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 《왕세자입학도첩》의 제작 목적은 그 당시 정치적 배경과 연관하여 근본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왕세자 입학례의 이본은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본은 다른 이본과 달리 상태가 가장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현존하는 왕세자 의례 및 교육 관련 궁중 기록화 가운데 효명세자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순조 시기 이전의 왕세자 의례와 관련된 궁중기록화는 주로 관례와 책례 위주로 그려졌으며, 화첩 및 병풍 위주로 제작되었다. 특히 세자의 교육은 세자시강원에서 전담하였는데, 특성상 세자의 의례 장면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연구에서 효명세자와 관련된 궁중기록화인 《왕세자입학도첩》에 그려진 의식의 의미와 절차에 근거하여 현대 입학식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

7) 김남기, 동궁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세자의 교육 -『소헌궁동궁일기』부터 『숙종춘방일기』까지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22권, 2009, pp.323-324.

8) 조선시대 역대 왕의 업적 가운데 선정만을 모아 편찬한 편년체의 사서. 전 90권 28책, 대한제국 1908년 완성,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을 고찰한다.

## 2) 실태조사

### (1) 초등학교 교사대상 면접조사

본 연구에서는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입학식의 실태조사를 위해 교사 대상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공립초등학교(고양오금초등학교, 부천부안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서울성신초등학교), 대안학교(양주쉐마기독교 학교) 이상 4개교이다. 이들 4개교로 제한된 것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립초등학교 2곳은 현재 연구자가 교육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택했고, 사립초등학교는 지인의 소개로 메일과 전화로 면접조사 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은 ① 입학식의 의미 ② 입학식의 절차 ③ 코로나19 이후 입학식의 변화 ④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⑤ 입학식의 절차 변형에 대한 견해 ⑥ 전통 입학식 절차에 대한 견해 ⑦ 기타의견 등이다.

면접조사는 대상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하 부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면접 시 연구주제를 설명하고, 질문지의 내용을 면접, 전화 인터뷰, 메일을 이용했다. 면접조사 질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과 전화응대 시간은 30분 이내로 인터뷰 시간을 정했다. 면접에서는 일시적으로 조사대상자와의 라포가 형성되고 상호감정의 교류를 갖게 되어,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면접조사에서는 부득이 전화와 메일을 병행하였다.

<표 1> 초등학교 교사 대상 면접 일시 및 방법

구분	학교명	면접대상	면접일시	면접방법
공립	고양오금초등학교	학교장	9월 27일	면접
	부천부안초등학교	교사	10월 5일	메일
사립	서울성신초등학교	학교장	9월 28일	메일
대안	양주쉐마기독교학교	교사	9월 30일	전화통화

고양오금초등학교의 학교장과 9월 27일 12시20분부터 13시까지 약 40분 동안 대면으로 면접 조사하였다. 고양오금초등학교 학교장은 예절교육에 관심이 높고 연구자와는 2020년부터 2021년 현재 전교생 예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이다. 부천부안초등학교는 학교 운영위원장의 소개로 면접조사를 메일로 실시하였다. 서울 성신초등학교는 사립학교로 교무부장님과 통화한 후 학교장의 질문지 응답 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양주쉐마기독교학교는 과학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전화조사로 30분간 진행하였다. 이상 4개교를 조사하였다.

## (2)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면접조사 연구를 위한 학부모 대상자는 현재 경기권과 충청권에 거주하고 있는 2021년도 입학생의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 설문지 문항은 ①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입학식 의미 ② 입학식 때 학부모의 기대감 ③ 입학식 때 갖는 마음가짐 ④ 입학식 때 입는 자녀의 복장 준비 ⑤ 특별한 이벤트 준비 ⑥ 코로나19 이후 입학식의 형태에 대한 의견 ⑦ 전통 의미를 담은 입학식의 변형에 대한 견해 ⑧ 기타의견 등이다.

학부모 면접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전화와 메일을 이용하였고, 전화응대 시간은 30분 이내로 인터뷰 시간을 정했다.

단, 본 연구의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의 사례가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15개의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와 면담 요청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면담자 진행이 어려워 조사 사례가 제한되었다.

면접 연구를 위한 대상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예비 학부모와 2021년 1학년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 5명이다. <표 2>는 학부모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다.

<표 2> 학부모 면접대상자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면접대상자	성별	연령	거주지	면접일시	조사방법
1	여	30대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9월 29일	전화통화
2	여	30대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10월 6일	SNS 메신저
3	여	30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0월 4일	메일
4	여	40대	인천광역시 서구	10월 19일	SNS 메신저
5	여	40대	인천광역시 서구	10월 30일	SNS 메신저

위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면접대상자는 예비 학부모와 신입생 학부모로 선정하였고, 이들은 충청권, 경인권에 거주하고 있다. 면접대상자 1은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면접대상자 2, 4, 5는 SNS 메신저를, 면접대상자 3은 메일을 활용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면접은 연구주제에 대한 설명 후, 부록 3에 제시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시작하였다.

(3) 국내외 학교 입학식 사례조사

국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학식 중 특별한 입학식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외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재교육원, 대안학교의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사례와 국외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블로그에서 조사한 사례를 논문기재에 동의를 받아 이용하였다.

<표 3> 국내외 학교 입학식 조사 일시 및 조사방법

국내외학교	입학식 시행년도	조사일시	조사방법
설천초등학교	2021년 3월 2일	2021년 7월 20일	포털사이트
남평중학교	2018년~2019년	2021년 8월 12일	
함평영재교육원	2020년 5월 6일	2021년 8월 16일	
서울지구촌학교	2012년 3월 2일	2021년 12월 25일	
일본	2021년 4월 13일	2021년 9월 2일	
중국	2021년 8월 29일	2021년 8월 30일	
독일	2021년 9월 4일	2021년 8월 20일	
베트남	2014년 3월 10일	2021년 8월 20일	

설천초등학교는 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함께 유치원생 2학급, 초등학교 6학급, 특수반 1학급으로 전교생 107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지난 2020년 한복과 학생 방한용 조끼, 기초적인 학용품 및 학습준비물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도시권에서는 온라인으로 입학식과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규모의 시골 학교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19의 어

려움에서도 교육 현장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

남평중학교는 2018년부터 2019년 3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특색있는 입학식 사례이다. 남평중학교의 입학식은 2019년 3월 5일 12시 10분부터 13시까지 EBS ‘행복한 교육 세상’에 소개되었다.

함평 영재교육원은 2020년 5월 6일 속수례(束修禮) 입학식을 진행했다.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 중 스승에게 가르침을 허락받는 예를 접목한 특색있는 입학식이었다. 2012년 3월 2일 서울 ‘지구촌 학교’의 개교식 및 입학식이 있었다. 이 학교는 다문화 특성화 교육과 정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결합된 국내 최초 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이다. 국외 입학 사례조사는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을 조사하였다. 입학식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학부모와 채팅을 하면서 본 사례에 기록을 허락하였다. 독일 입학식 사례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고 관심 댓글을 쓰고 입학식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받았다. 베트남의 사례는 2014년 교육부 공식블로그에 기록된 내용을 검색하여 기록을 찾아보았다.

### 3. 용어의 정의

#### 1) 입학례(入學禮)

입학례(入學禮)는 조선시대에 왕세자, 왕세손, 왕자군, 종친이 성균관에 입학할 때 행하는 의례로 통상적으로 입학례라 하고, 의례로서의 정확한 명칭은 ‘입학의(入學儀)’<sup>9)</sup>이다.

왕세자, 왕세손, 왕자군 등은 시강원(侍講院)이나 강서원(講書院), 종학(宗

9) 출처:실록위키 [http://dh.aks.ac.kr/sillokwiki/입학례\(入學禮\)](http://dh.aks.ac.kr/sillokwiki/입학례(入學禮))

學) 등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입학례만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이루어졌다. 성균관 입학은 유학이 교육의 표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자의 입학례는 『예기』에 세자가 국학에 입학할 때 입학례를 했다는 데에 유래를 두고 있다. 『태종실록』 3년(4월 8일) 조선 초에는 고려 시대의 영향으로 왕실의 자손을 승려에게 보내어 교육하기도 했지만, 유신(儒臣)들의 건의에 따라 1403년(태종 3)에 원자가 성균관에 입학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세종실록』 3년(12월 23일) 그리고 1421년에는 왕세자가 입학할 때 ‘왕세자입학의(王世子入學儀)’가 만들어진 후 이에 따라 입학례가 진행되었다.<sup>10)</sup>

## 2) 교육의례

문화적 실천으로 보는 의례 행위는 사회적 행위이며 하나의 교육적 행위이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공식적인 채널로서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으로 매체가 발달을 거듭해 갈수록 다양한 문화적 과정에 대한 교육적인 의미를 민감하게 파악해야 한다. 포스트모던적 논의와 함께 의례 연구의 새로운 장(場)을 펼치면서 문화적인 관점과 함께 교육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가고 있다. 세대 간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문화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례 연구는 학습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학적으로 큰 의미<sup>11)</sup>를 갖는다. 따라서 교육의례는 문화적 관점을 내포한 일련의 의식과 절차, 그에 따른 의미를 내포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적 행위를 뜻한다.

---

10) 출처:실록위키 [http://dh.aks.ac.kr/sillokwiki/입학례\(入學禮\)](http://dh.aks.ac.kr/sillokwiki/입학례(入學禮))

11) 이병준, 의례의 교육학적 의미에 대한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제8권 제4호, 2013, pp.227-236.

### 3) 학교 의례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아침인사, 아침조회, 학급 약속, 특별한 수업 방법 등 같은 학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의례를 학교의례라 한다. 이러한 의례는 성숙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육적인 의미를 갖는다.<sup>12)</sup> 가족 공동체에서의 의례 행위가 중요하듯, 학교에서의 의례도 인간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필연적인 행위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의례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을 통하여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다른 사람과 함께 행사의 의미를 공감하고 행동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의례의 성격을 갖는다.

### 4) 입학식

우리나라 학교에서 입학식이 처음으로 시행된 날짜와 장소는 문헌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한말로 추정된다. 구한말에는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가 있었다. 1895년 7월 소학교령이 실시되면서 소학교가 생겼고, 1906년 8월 27일 보통 교육령이 발표되어 그 명칭이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당시 보통학교 연중행사 속에 입학식이 포함되어 있었고, 입학식은 4월 5일에 있었다. 오늘날 입학식은 매년 3월 초 각 교육 기관별로 기관장(학교장) 주관하에 계획되고 진행되는 학교 행사이며 신입생을 맞이하는 의식<sup>13)</sup>이다.

12) 조규동 외 3인, 의례(儀禮)의 교육적 의미에서 본 초등학교 졸업식,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권 2호, 2016, pp.105-126.

## II. 왕세자 입학례에 관한 고찰

### 1. 왕세자 입학례의 의의

왕세자는 왕세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통과례인 책례, 입학례, 관례, 가례를 거쳤다. 그중에서 책례는 왕의 후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의례이다. 왕은 세자들이 왕위계승자로서 가져야 할 권위를 높이고, 상징화하여 소명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의례를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삼았다. 책례, 입학례, 관례, 가례의 순서로 교육의례가 진행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국가 기본정책으로 삼았으므로 사대부의 자녀는 물론 왕실의 자녀까지 대부분 승려에게 수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태종도 그 당시 원자인 양녕대군을 승려에게 수학시키려고 하였는데, 신하들이 유교 이념에 따라 성균관에서 수학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것이 원자의 ‘입학(入學)’이 시행된 배경이다. 왕세자가 본격적으로 학업의 길에 들어서는 입학(入學)에는 유교적인 의례 절차가 요구되었다. 조선왕조의 왕세자 교육은 세자시강원에서 전담하여 제도가 만들어지고 강화되었다. 왕세자가 입학례를 하기 전에는 기초교육으로 『소학(小學)』을 가르쳤으며 왕세자로 책봉된 후에야 비로소 성균관에서 입학례를 했다<sup>14)</sup>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왕세자의 입학례(入學禮)이다. 이때 치러지는 입학례의 순서를 살펴보면 출궁의(出宮儀), 작헌의(酌獻儀), 왕복의(往復儀), 수폐의(脩幣儀), 입학의(入學儀), 수하의(受賀儀) 6단계의 절차로 길일을 정해 성균관에 가서 공자에게 절하고 교수관 박사에게 제자의 예를 올린다. 다음은 1421년(세종 3년)

13)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4770> 에서 검색 2021.11.12.

14) 이원호, 조선왕조 왕세자교육, 조선시대 교육의 연구, 민음사, 2002, pp.37-38.

문종의 입학례 기록이다.

처음에 임금이 세자(世子)를 봉하고 대언 등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 8세가 되어 입학(入學)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지금 세자가 나이 8세이니, 마땅히 이 해 안에 좋은 날을 가려 입학해야 될 것.” 이라고 하였다. .... 세자가 의위(儀衛)를 갖추고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성균관에 이르러 유복(儒服)을 입고 대성전(大成殿)에 들어와서 문선왕(文宣王)과 네 분의 배향위(配享位)에 제사를 지내고 학생에게 십철(十哲)과 동무(東廡)·서무(西廡)에 술잔을 나누어 올리게 하였다. 박사에게 속수례(束脩禮)를 행하고 세자가 당(堂)에 올라 소학제사(小學題辭)를 강(講)하였다 돌아와 신궁(神宮)에 가서 잔치에 배석하여, 임금이 학관(學官)과 학생에게 음식을 주도록 명하였다. 이때 탁신(卓愼)이 겸성군사성(兼成均司成)으로서 박사가 되었다<sup>15)</sup>.

이외에 효명세자(익종, 1809~1830)의 입학례를 자세하게 기록화한 화첩 《왕세자입학도》가 있다.<sup>16)</sup> 효명세자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100년 만에 정실 왕비 소생 원자로 세자가 되었다.<sup>17)</sup> 유교 중심의 조선에서는 명분과 예를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적장자로 명분을 갖춘 효명세자의 의례는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존하는 왕세자 관련 궁중기록화 중 효명세자의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15) 『世宗實錄』 14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2월 25일(갑인).

16)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2008, pp.175-177.

17) 김명숙, 효명세자 연구, 19세기 반외척세력의 정치동향-순조대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중심으로 효명세자 연구는 생애, 건축, 문학, 미술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어왔다, 두술, 2005, pp.61-104; 김문식,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문헌과 해석 56, 태학사, 2011, pp.63-77; 이민아, 효명세자, 헌종대 궁궐 영건의 정치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2008, pp.187-257; 윤민경, 세도정치기 安東 金門의 정치적 기반 : 국왕, 유력가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1, 서울대학교, 2015, pp.179-239; 유재빈, 19세기 왕실의 기록과 정치-효명세자와 《기축진찬도》(1829)를 중심으로, 미술사학 36,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8; 정희정,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 절차와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윤은혜, 조선후기 왕세자 입학례 복식 고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국립고궁박물관,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 국립고궁박물관, 2019.

있는데, 대부분 의례에 관련된 것이다. 모든 왕세자가 같은 나이에 입학례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통 8세 전후가 되면 성균관 입학례를 한다.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는 세종 때부터 시작하여 고종 때까지 진행되었다.<sup>18)</sup> 『실록』에는 왕세자 입학례에 대한 절차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반중잡영(泮中雜詠)』<sup>19)</sup>에도 문자 기록으로 중심이 되어있는 왕세자의 입학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만, 당시의 모습을 추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817년 진행된 효명세자의 입학례는 유일하게 화첩 형식의 《왕세자입학도》로 제작되어 전해지고 있다. 19세기는 궁중기록화가 대부분 병풍으로 제작되던 시기였고, 《왕세자입학도》는 순조 때 처음 제작된 왕세자 입학례를 그린 작품이다. 따라서 이 화첩은 의례 절차순서에 따라 의주와 행사 그림을 수록하였고, 마지막에는 발문과 참석한 관원들의 축시(祝詩)가 실려 있다. 세자는 의례를 통해 예법을 익히며 군신(君臣)의 위계질서를 체득했고, 이러한 의례를 단계별로 행함으로써 훗날 통치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sup>20)</sup>로 삼았다.

1817년 3월 11일 효명세자가 8세에 입학례가 시행되었다.<sup>21)</sup> 입학례 기원은 중국 『예기(禮記)』의 「왕제(王制)」에 왕태자와 왕자, 제후들의 태자와 경대부, 원사의 적자, 나라의 준사, 선사들을 모두 나이순으로 국학에 입학시켰다는 기록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sup>22)</sup> 당나라와 양나라 때 외에는 입학례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조선 후기까지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sup>23)</sup>

18) 김문식, 왕세자 입학례, 문학동네, 2010, pp.31-33.

19) 김용재, 윤기(尹愷)의 『泮中雜詠』에 나타난 성균관(成均館) 재생(齋生)들의 생활상과 교육,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83권0호, 2020, PP.271-302.

20) 한형주, 조선초기 왕세자의 국가의례 참여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3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pp.68-102.

21) 『純祖實錄』 20권, 순조 17년 3월 11일.

22) 『禮記』, 「王制」, 王太子王子 群后之太子 聊大夫元士之觸子 國之後選 皆造馬 凡入學 以顧

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왕실의 왕세자 생활, 자식이 없이 승하한 인종, 궁밖의 사저에서 유년시절을 보내어 정상적인 세자 책봉 경로를 밟지 않은 중종, 선조, 철종, 고종, 왕세자에 책봉된 후 입학례를 즉위할 시간이 부족했거나 나이가 어린 채 즉위했던 순조와 현종

효명세자 입학례가 처음 언급된 것은 1816년 6월 10일이었다.<sup>24)</sup> 당시 좌의정 한용귀가 세자가 입학할 나이에 이름에 따라 길일을 잡아 입학식 시행을 요청했으나, 순조는 다음 해 봄을 기다렸다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1817년 1월 1일에 좌의정 한용귀와 우의정 김사목은 효명세자 입학례에 관해 길일을 택하여 시행할 것을 재요청하였다. 왕세자 입학례는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국가 전례이자 다양한 교육목적을 가진 왕실의 중요한 교육의례였다.

## 2. 왕세자 입학례의 기록

왕세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는데, 특히 원자 또는 왕위계승자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왕세자 책봉까지 학식은 물론 기본 소양과 인덕을 쌓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나이가 들수록 철저한 유교 교육이 체계적이고 각별하게 진행되었다.<sup>25)</sup>

### 1) 왕세자들의 성균관 입학례

왕세자의 입학례는 왕세자가 생활하는 동궁을 나와서 성균관에 도착하여 공자와 선현들을 모신 대성전(大成殿)을 참배하고, 명륜당에서 박사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예를 행하고 가르침을 받는 의식이다. 책봉례, 관례, 가례의 장소는 궁궐이지만 입학례는 궁궐이 아닌 성균관에서 이루어진다. 왕세자는 입학식 이후 계속 성균관에 다니지 않았다. 세자는 세자시강원 소속의 스승

의 경우가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학술연구용역보고서, 2010, p.19.

24) 『純祖實錄』 19권, 순조 16년 윤6월 10일 左議政韓用龜啓言: 世子已屆入學之年, 請令儀曹, 謹稽列聖朝已行之典, 涓吉舉行 教曰: 待明春更奏.

25)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2008, pp.85-154.

들에 의해 개인 교습을 받게 된다. 단지 왕세자는 학문을 배우는 성균관 유생의 입장에서 행사를 치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입학례를 가장 먼저 치렀던 사람은 태종 3년의 양녕대군이였다. 세종대에는 왕세자를 포함하여 왕실 남자들 대부분이 입학례를 거쳤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왕실의 의식절차를 기록한 책들이 소실되었고, 선조 대에 이르러 의식절차를 재정비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3년 문종의 입학례 기록이다. 예조에서 올린 왕세자의 입학하는 의식 및 속수례 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루 전날에, 유사(攸司)가 문묘의 전당(殿堂)과 학당(學堂)의 안팎을 소제한다. ... 그 날에 왕세자가 학생복을 입고 학당(學堂)의 문밖에 이르는데, 속백(束帛) 세 필, 술 한 병(두 말), 수(脩) 한 상(다섯 정)이다.”<sup>26)</sup>

세종의 왕세손(王世孫) 단종이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였는데, 예문 제학(藝文提學) 윤상(尹祥)이 박사(博士)가 되어 《소학제사(小學題辭)》를 강의하였다.<sup>27)</sup>

연산군 10년 입학례를 행한 후, 왕세자는 사면령을 반포하는데, 입학이치(入學以齒)의 이념의 내용이 연산군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세자 이황(李顛)이 나이 점점 자라 학문이 날마다 성취된다. 이에 지금 입학시켜 나이의 차례에 따라 사양하는 예[齒讓之禮]를 익힘으로써 스승을 높이고 도를 중히 여기는 의기를 알게 하니 만대토록 태평할 터전을 여는 길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 국가의 경사가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sup>28)</sup>

<표 4>는 조선시대 입학례의 기록<sup>29)</sup>이다.

26) 『世宗實錄』 14권, 세종 3년 12월 23일, 예조에서 왕세자의 입학하는 의식과 속수(束脩)의 의식을 게하였다.

27) 『世宗實錄』 121권, 세종 30년 9월 1일 甲申朔/王世孫入學于成均館, 藝文提學尹祥爲博士, 講《小學》題辭.

28) 정희정,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 절차와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13.

〈표 4〉 조선시대 입학례 기록

일시	국왕	입학자	나이	지위	스승	비고
1403. 04. 08	태종 03	양녕대군	10	원자	성균관 사성 설칭 성균관 사예 김조	개성 성균관
1421. 12. 23	세종 03	문종	8	왕세자	성균관 사성 탁신	세종의 첫째 아들
1430. 05. 17	세종 12	진평대군 안평대군 임영대군	13 12 10	대군	-	세종의 둘째 아들 세종의 셋째 아들 세종의 넷째 아들
1436. 04. 17	세종 18	화의군	11	군	-	영빈소생 첫째 아들
1436. 04. 16	세종 18	광평대군 금성대군	11 10	대군	-	세종의 다섯째 아들 세종의 여섯째 아들
1448. 09. 01	세종 30	단종	8	왕세손	예문제학 윤상	세종의 손자
1453. 04	단종 01	도원군 (덕종)	16	군	-	세조의 첫째 아들
1457. 12. 24	세조 03	예 종	8	왕세자	대제학 최항	
1487. 02. 29	성종 18	연산군	12	왕세자	달성군 서거정	
1504. 03. 04	연산 10	세자	8	왕세자	대제학 김감	
1522. 10. 25	중종 17	인종	8	왕세자	대제학 이생	
1560. 09. 12	명종 15	순회세자	10	왕세자	대제학 홍섬	
1597. 05. 16	선조 30	광해군	23	왕세자	지성관사 이덕행	
1610. 05. 28	광해 02	세자	13	왕세자	이정구 병조판서역임	
1625. 10.	인조 03	소현세자	14	왕세자	대제학 김류	
1645. 10. 12	인조 23	효종	27	왕세자	대제학 이식	
1652. 04. 12	효종 03	현종	12	왕세자	대제학 체유후	
1669. 08. 02	현종 10	숙종	9	왕세자	대제학 조복양	
1695. 03. 12	숙종 21	경종	8	왕세자	대제학 박태상	
1722. 09. 18	경종 02	영조	29	왕세제	대제학 조태억	
1727. 03. 19	영조 03	진종	9	왕세자	대제학 이의현	
1742. 03. 26	영조 18	장헌세자	8	왕세자	대제학 이병상	
1761. 03. 10	영조 37	정조	10	왕세손	대제학 김양택	
1817. 03. 11	순조 17	효명세자	9	왕세자	前대제학 남공철	
1882. 01. 10	고종 19	순조	9	왕세자	대제학 민태호	
1911. 01. 09	순종 05	영친왕	14	왕세자	-	학습원 중등과
1922. 03. 11	순종 16	덕혜옹주	10	옹주	-	경성학교조합

〈출처:김문식, 왕세자의 입학식, 문학동네, 2010, p.30.〉

29) 김문식, 왕세자의 입학식, 문학동네, 2010, p.30.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는 1625년(인조 2) 1월 21일에 융정전(隆政殿)에서 관례를, 1월 27일에 융정전에서 왕세자 책봉례를, 10월 17일에는 성균관에서 입학례를 했다.<sup>30)</sup> 소현세자는 이런 통과의를 거치면서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임을 알렸다.

1696년 편찬된 왕세자가례등록(王世子嘉禮臚錄)에는 1694년(숙종 20) 12월 20일부터 왕세자(경종)의 성균관 입학례를 거행할 것을 결정하고 의례를 치르기 위한 길일을 택하는 각종 절차가 담겨져 있다.<sup>31)</sup>

왕세제(王世弟)가 입학(入學)하였으니, 태학 박사(太學博士) 조태억(趙泰億)이 처음으로 《소학(小學)》을 가르쳐 주었다.<sup>32)</sup> 영조의 입학례 기록이다.

정조의 입학례 기록이다. 왕세손의 입학례를 행하다.

왕세손이 작헌례를 마치고 이어서 학생복(學生服)을 갖추고 나아가면, 익선(翊善)이 인도하여 명륜당(明倫堂)의 대문(大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선다.....임금이 입학 제집사(入學諸執事)에게 입시(入侍)하도록 명하여 세손의 사부(師傅)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전(賞典)을 내렸는데, 좌익선(左翊善) 이인배(李仁培)에게는 준직(準職)을 제수하고, 집사 유생(執事儒生)에게는 각기 붓과 먹과 종이를 내려 주었으며, 수복(守僕)에게는 쌀과 면포를 제공(題給)하도록 하였다.<sup>33)</sup>

고종 19년 1월 10일 왕세자가 문묘에 나아가 작헌례와 입학례를 행했는데, 왕세자가 명륜당에 앉아 소학을 강하였을 때 왕세자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다. 몸가짐 거동이 의젓하였고, 덕을 완비한 사람과 같다고 했다.<sup>34)</sup>

30) 『仁祖實錄』 8권, 인조 3년 1월 庚午(21일)·월 丙子(27일); 권10, 仁祖 3년 10월 壬辰(17일).

31) 장서각, 경종왕세자 가례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2) 『景宗實錄』 9권, 경종 2년 9월 18일 庚子/王世弟入學, 太學博士趙泰億, 始授《小學》

33) 『英祖實錄』 97권, 영조 37년 3월 10일 王世孫酌獻禮訖, 仍具學生服以出, 翊善引立於明倫堂大門東西向 陳帛篋紵布三匹, 醴酒二斗, 修案五挺. 博士具公服, 執事者引立於明倫堂東階上西向. 將命者東向曰, 敢請事, 王世孫少前曰, ‘某願受業於先生’, 將命者入告, 博士曰, ‘某也不德, 請世孫無辱’, 如是者至三, 王世孫請終賜見, 博士曰, ‘某也辭不得命, 敢從命’.

1882년(고종 19년) 왕세자 순종의 입학례까지 조선 왕실의 입학례는 꾸준히 계승되었으나, 이후 신식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과정이 완전히 개편되어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입학례가 중단되었다.<sup>35)</sup>

<표 5> 실록에 기록된 입학례

국왕	입학자	입학례	출처
세종 3년	왕세자	작헌의, 속수의	세종실록 14권 (1421년12월23일)
세종 30년	왕세손	작헌의, 속수의	세종실록 121권 (1448년 9월 1일)
세조 3년	왕세자	알묘의, 속수의	세조실록 10권 (1457년12월24일)
영조 3년	왕세자	속수의, 입학의	영조실록 11권 (1727년 3월19일)
영조 37년	왕세손	입학의	영조실록 97권 (1761년 3월10일)
순조 17년	왕세자	작헌의, 속수의, 입학의	순조실록 20권 (1817년 3월11일)
고종 19년	왕세자	작헌의, 속수의, 입학의	고종실록 19권 (1882년 1월10일)

<출처:김문식, 왕세자의 입학식, 문학동네, 2010, p.38.>

<표 5>는 실록에 기록된 입학례 절차는 작헌의(酌獻儀), 속수의(束脩儀), 알묘의(謁廟儀), 입학의(入學儀) 절차로 간략하게 기록했다. 조선 왕실의 입학식 절차는 크게 출궁의, 입학의 수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입학의는 다시 몇 개로 나누어 보면 첫번째 작헌의 또는 알묘의라고 하고 두 번째 왕복의, 세 번째 수폐의 또는 속수의라고 한다.

34)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 1월 10일, 初十日, 王世子詣文廟, 行酌獻禮, 仍行入學禮.

35) 김문식, 왕세자의 입학식, 문학동네, 2010, p.29.

## 2) 효명세자의 왕세자 입학례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는 조선 제23대 국왕 순조와 순원(純元)왕후 김씨의 맏아들로 1809년(순조9년) 8월 9일에 태어났다. 1812년 6월 2일 3세 때 이름을 영이라 하였는데 원래 발음은 ‘대(뫿)’인데 ‘영’으로 부르도록 했고, 1812년 7월 6일 왕세자로 책봉되었다.<sup>36)</sup> 1817년 3월 11일 8세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1819년 3월 20일 10세에 관례(冠禮)를 치렀다.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훗날 신정(新貞)왕후)으로 맞이하였다. 1827년 2월 효명세자가 18세 때에 부왕 순조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효명세자는 21세에 짧은 생애를 마쳤는데, 1830년 7월 15일 ‘효명(孝明)’이라는 시호를 받은 뒤 익종(翼宗)을 거쳐 문조(文祖) 익황제(翼皇帝)로 추존되었다.

‘효명’은 효성스럽고 명민함으로 뛰어난 문학과 예술적 능력을 발휘한 세자였다. 경헌시초(敬軒詩抄), 학석집(鶴石集), 담여헌시집(談如軒詩集), 경헌집(敬軒集) 등의 여러 문집을 남겼다. 시조 9수와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 ‘춘당대(春塘臺)’ 등의 국문 악장을 비롯해 40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sup>37)</sup> 특히 시는 연작이 많아 실제 편수는 이것을 훨씬 넘는다. 효명의 시는 자연을 감상한 내용으로 신하들과 주고받거나, 누각과 정자에서 풍광을 읊었다. 누이와의 우애를 그린 작품에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효명세자의 《왕세자입학도》는 계절을 나타내는 산수보다는 행차의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건물과 행량은 방형과 장형의 배치로 자유로운 창작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인물을 세밀하게 그리고 절차를 충실히 묘사하였다.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만, 다른 궁중

36) 이종복, 효명세자의 저술과 문학, 한국한시연구 10, 2002; 지두환, 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9; 효명세자 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 2005.

37) 이종복, 효명세자의 저술과 문학, 한국한시연구 10, 2002, pp.315-345.

기록화와 마찬가지로 왕세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sup>38)</sup>

《왕세자입학도》는 많은 이본이 있는데, 오늘날 현존하는 효명세자의 입학례 관련 화첩은 모두 7종으로 각각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 6>은 효명세자 입학례 화첩의 소장처와 화첩의 명칭<sup>39)</sup>이다.

<표 6> 효명세자 입학례 관련 화첩의 소장처와 명칭

소장처	화첩명칭
국립문화재연구소	《왕세자입학도》
장서각	《왕세자입학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참의공사연도》
경남대학교박물관(테라우찌 문고)	《정축입학도첩》
국립중앙도서관	《춘궁강학도》
고려대학교박물관	《왕세자출궁도》
연세대학교 박물관	《왕세자입학도》

<출처;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실행사기록화, pp.140-150참조>

효명세자의 《왕세자입학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출궁의(出宮儀)

<출궁의>는 왕세자가 동궁(東宮)에서 나와 성균관 대성전에 도착하기까지

38)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p.238-239.

39) 국립문화재연구소, 입학도의 제작배경과 이본연구, 조선왕실행사기록화, 2011, pp.140-150.

과정이다. 절차의 내용과 그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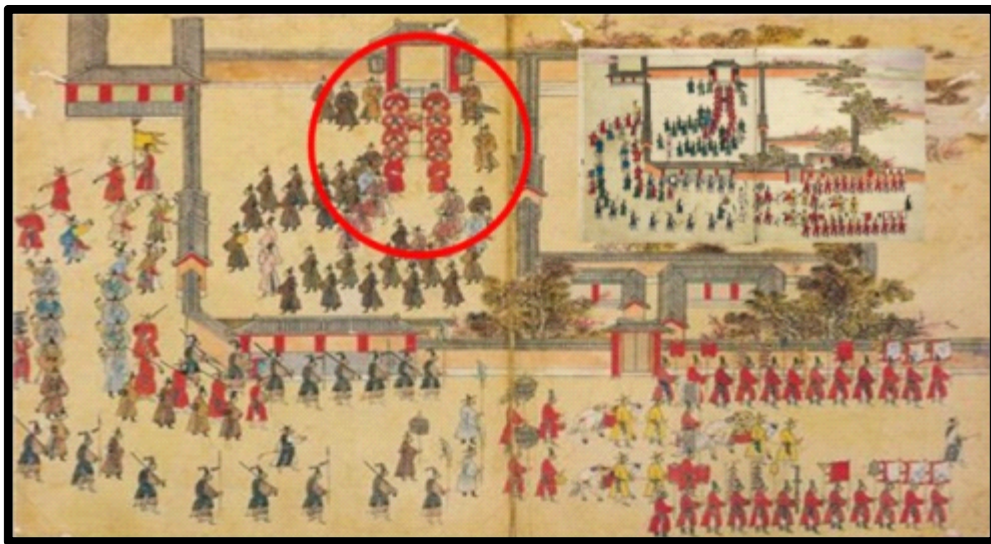
익위사는 자기 소속의 의장 호위를 여느 때처럼 하고 사복시 첨정은 연을 창덕궁 홍화문 밖에 대기시키고, 여(輿)를 궁 문밖에 놓는다. 궁관은 시각에 맞추어 모이고, 문관은 흑단령, 무관은 기복을 입는다. 3각 전에 궁관은 궁 문밖에 나가 북쪽을 위로하여 마주 보고 좌우로 나누어 선다. 세자 익찬 정6품은 의식에 맞추어 인(印)을 가지고 나오며 배위하는 관리는 모두 함 밖으로 나아가 왕세자(子)를 맞이한다. 예모관(겸보덕 정3품)은 궁 밖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고, 밖이 준비되었음을 알린다. 왕세자는 머리를 쌍동계로 하고, 모자는 공정책을 쓰고, 옷은 곤룡포를 입고, 여를 타고 나온다. 예모관이 앞에서 세자를 인도하고, 익찬(정6품)이 인을 들고 앞에 선다. 산선과 배위는 여느 때처럼 하고 홍화문을 지나서, 동쪽 협문으로 나온다. 예모관은 엎드려서 자에게 “여에서 내려 연에 오르십시오” 라고 말한다. 왕세자가 여에서 내려 연으로 갈아타면, 예모관이 무릎을 꿇고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청한다. 배위관들이 말에 오르면, 예모관이 무릎을 꿇고 “출발하십시오” 라고 청하고 나면 예모관은 부복후에 나간다. 연이 움직이면, 궁관은 모두 말에 올라타 왕세자를 배위하여 성균관에 이른다. 왕세자가 문묘 동쪽 문밖으로 강련소(연을 타고 내리는 곳)에 이르면, 예모관이 엎드려 “연에서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 왕세자는 연에서 내리고 예모관은 앞에서 인도하여 편차로 들어간다. 산선과 배위는 평상시와 같다.<sup>40)</sup>

위 원문은 왕세자가 동궁에서 나오는 절차로 왕세자와 동반 인물들의 의

40) 《왕세자입학도》 <출궁의>, 翊衛司勒所部陣仗衛如常司僕寺僉正進輦於弘化門外進輦於宮門外宮官依時刻集到各服其服(文官黑團領武官器服)前三刻宮官就宮門外分左右相向北上翊贊負印如式陪衛之官(翊衛二人佩雲劔司禦二人佩弓矢)俱詣閣外奉迎禮貌官(兼輔德)詣閣外跪贊請內嚴少項又白外備王世子具雙童鉅空頂岫袞龍袍乘輦以出禮弄扇陪衛如常儀至弘化門哭由東挾以出禮貌官跪贊請降輦乘輦王世子降輦乘輦禮貌官跪贊請少駐陪衛之官乘馬禮貌官跪贊請進發俯伏輦退輦動宮官皆乘馬陪衛王世子至成均館廟司黑團領儒生青衿服道左序立鞠躬過則平身王世子至廟東門外降輦所禮貌官跪贊請降輦王世子降輦禮貌官前引入便次繼扇陪衛如常儀.

장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왕세자의 복식과 문무관들의 복식 그리고, 세자의 위사들이 패용(佩用)하는 무기류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2>는 궁에서 출발하여 성균관 대성전까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왕세자 행렬이 창경궁 중화문(中花門)을 지나 이극문(貳極門)을 통과하는 장면이다. 원문에는 시간과 해당하는 인물들 그리고 의례행위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그림 2> 《왕세자입학도》 <출궁의>  
출처: <https://blog.naver.com/kbctthink/222340355496>

행렬의 제일 앞에는 양쪽으로 의장물을 들고 있는 노부 행렬이 있고, 그 가운데로 견마배가 뒤따른다. 그 뒤로는 근장군사, 협련군, 무위별감, 세자시강원, 세자익위사 등이 배열에 맞춰 서 있다. 그리고 행렬의 끝자락에 별감으로 보이는 10명의 담배군이 가마(輦)를 들고 있고, 그 뒤로 내시가 왕세자를 보필하고 있다. 다른 궁중회화와 마찬가지로 왕의 용안이나 다음 왕이 될 세자의 모습은 그리지 않고 빈 수레로 표현했다. 행렬 맨 앞의 말에는 ‘왕세자인’ 이 새겨진 도장을 실었는데, 이 또한 왕세자를 상징한다. 또한,

출궁 2일 전에 각 해당 관청에서는 내외 관원에게 직무를 맡겨 책무를 다하기를 선포하며, 입학의 당일에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sup>41)</sup>에서는 왕세자에 준하는 의장(儀仗)과 시위(侍位)에 관한 준비를 한다. 왕세자가 출궁할 준비가 되면 이때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나온다. 기록에 의하면 연(輦)을 타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상은 연을 타기 전 궁 안에서 왕세자가 이동할 때에는 덮개가 없는 작은 가마 여(輿)를 먼저 타고 광화문에 이르러 협문(夾門)을 나오면 연(輦)으로 바꿔 탄다. 문관은 단령(團領)에 품대(品帶)를 하고 무관은 철릭을 입는다.

## (2) 작헌의(酌獻儀)

<작헌의>는 성균관 대성전에 모셔있는 공자와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네 성인의 신위에 술잔을 올리는 예이다. 성균관을 향하는 왕세자는 처음 옷을 갈아입는데, 작헌례 때 왕세자가 ‘학생복(學生服)을 갖춘다.’ 라고 언급되어 있다. 왕세자의 서연복인 공정책·곤룡포를 학생복으로 갈아입는데, 이는 학생의 신분에서 스승을 뵈고 유가의 학통을 잇는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은 입학례가 궁궐이 아닌 성균관에서 이루어지듯이 타 의례와 다른 의미가 있다. <작헌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세자가 성균관 문묘에서 예를 행할 때가 되면, 예모관은 편차 앞에 가

41) 조선시대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아본 관청. 계방(桂坊)이라고도 한다. 병조(兵曹)의 속아문(屬衙門)으로, 세종 때에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정5품 좌·우익위(左右翊衛) 각 1명, 종5품 좌·우사어(左右司禦) 각 1명, 정6품 좌·우익찬(左右翊贊) 각 1명, 종6품 좌·우위수(左右衛率) 각 1명, 정7품 좌·우부수(左右副率) 각 1명, 정8품 좌·우시직(左右侍直) 각 1명, 정9품 좌·우세마(左右洗馬) 각 1명씩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익위사로 고치고, 칙임관(勅任官)으로 익위·사어·익찬·위수를, 주임관(奏任官)으로 부수·시직·세마를, 판임관(判任官)으로 전서관(典書官)을 두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자익위사 [世子翊衛司]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3234&cid=40942&categoryId=33383> 에서 검색 2021.9.17.

서 “준비하십시오” 라고 청하고 조금 뒤에 “작헌례를 행하십시오” 라고 청한다. 왕세자는 학생복으로 갈아입고 나온다. 배위는 평상시와 같다. 예모관이 앞에서 인도하여 동쪽 문을 거쳐 들어간다. 왕세자는 절하는 자리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서 선다. 찬자가 “네 번 절하십시오” 라고 하면, 예모관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십시오” 라고 청한다. 왕세자는 허리를 굽혀 네 번 절한다. 학생들도 모두 네 번 절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하지 않는다. 예모관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위(손씻는 자리)로 가서 북쪽을 향하고 서고 손 씻는 것을 마친다(휘건은 검보덕 정3품과 겸사서 정6품이, 옥수는 필선 정4품이, 작수는 문학 정5품과 겸문학 정5품이, 승수는 사서 정6품이, 진건은 겸필선 정4품이, 수건은 설서 정7품이 각각 말한다). 손을 씻고 나면 예모관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쪽 계단을 올라가 정위존소로 가서 서쪽을 향해서 선다. 좌우에서 배위하고, 사람을 헤아려 술을 올리면 집사자 한 사람이 상보를 들어 올리고 술을 따른다. 종관 두 사람이 술잔에다 술을 받는다. 술을 따르는 것은 겸문학이, 술을 받는 것은 필선이 한다. 예모관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가서 북쪽을 향해서 서서 왕세자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청한다. 왕세자는 무릎을 꿇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들고 무릎을 꿇고 나아간다. 예모관은 “세 번 향을 올리십시오” 라고 청하면 왕세자가 세 번 향을 올린다.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갖다 놓는다. 종관(겸필선)이 술잔을 들고 무릎을 꿇고 나아간다. 예모관이 “술잔을 잡고 술잔을 올리십시오” 라고 청하면 왕세자가 술잔을 잡고 올리는데 술잔을 종관(겸문학)에게 주면, 종관이 신위 앞에 바친다. 예모관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허리를 펴십시오” 라고 청하면 왕세자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허리를 편다. 예모관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집을 나와 배위존소(配位尊所)로 가서 서쪽을 향해서 서고 집사자가 상보를 들어 올리고 술을 따르면, 종관이 술을 받는다. 예모관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네 성인의 신위 앞으로 가서 예를 행하는데 의식은 위와 같다(동쪽 1위 봉작 술 따르는 것은 문학이, 전작 술잔을 올리는 것은 겸사서가 말한다. 서쪽 1위 봉작은 겸문학이, 전작은 사서가 맡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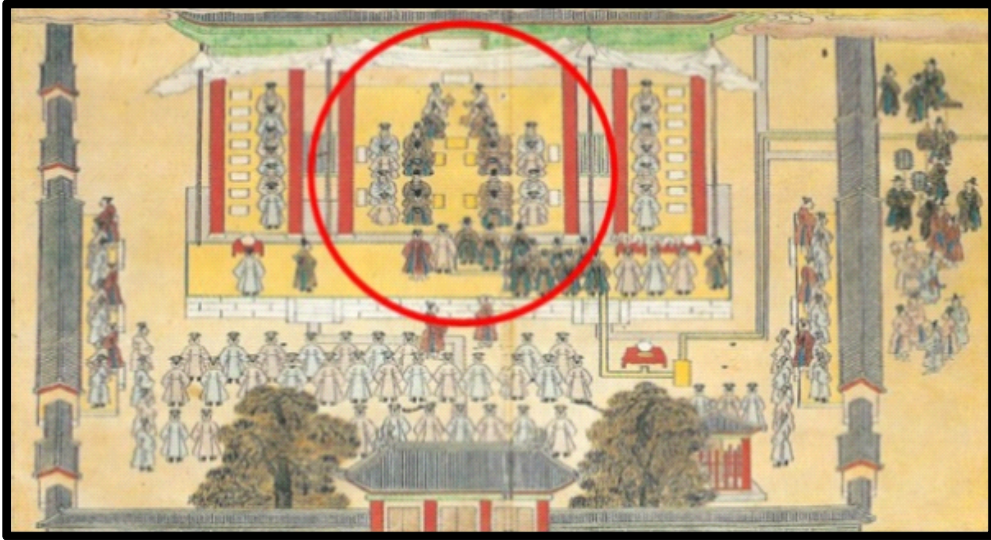
다. 동쪽 2위 봉작은 필선이, 전작은 설서가 맡는다. 서쪽 2위 봉작은 필선이, 전작은 설서가 맡는다). 예모관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내려와 처음 배위로 간다. 작헌이 끝날 무렵, 집사자들은 나누어 전내와 양쪽 곁채의 종향신위 앞으로 간다. 조전이 끝나면 모두 제자리로 간다. 찬자가 “네 번 절하십시오” 라고 하면, 예모관이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십시오” 를 청한다. 왕세자는 엎드려 네 번 절한다. 학생들도 모두 네 번 절한다. 예모관은 왕세자를 인도하여 다시 편차로 돌아온다. 배위는 평상시와 같다.<sup>42)</sup>

다음 <그림 3>은 <작헌의>를 그린 것이다. 왕세자는 성균관 대성전 문밖 편차에서 작헌의 의식 전까지 잠시 머물다가 준비가 되면, 문을 통해 대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림 3>의 <작헌의>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길과 대성전 안의 노란색 자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왕세자가 지나는 길과 작헌의 자리를 별도로 표시했다.

동삼문은 임금이 문묘를 출입할 때 사용하던 문으로 산선차비와 배관들은 동삼문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문밖에서 대기한다. 또한, 대성전 안의 흰색 표시는 공자와 네 성인의 신위를 표시한 것으로, 가운데 북쪽에는 공자의 신위를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네 분의 신위가 모셔있고 각각에 술을 올리고 절을 하였다. 효명세자는 가운데 노란색 자리 다

42) 《왕세자입학도》 <작헌의>, 行禮時至禮貌官詣便次前跪贊請內嚴少頃又贊請行酌獻禮王世子改具學生服以出陪衛如常儀禮貌官前引入自東門弄扇及陪衛不應入者止於門外就拜位西向立每立定禮貌官退俯伏於左贊者唱四拜禮貌官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學生皆四拜先拜者不拜禮貌官引王世子詣盥洗位北向立盥訖揮巾兼輔德兼司書沃水…弼善酌水…文學兼文學承水…司書進巾兼弼善受巾說書引王世子陞自東階左右陪衛量人酒陞詣正位尊所西向立執事者一人舉幕酌酒從官二人以爵受酒酌酒兼文學受酒弼善禮貌官引王世子詣神位前北向立贊請跪王世子跪執事者一人捧香盒一人捧香爐棺進禮貌官贊請三上香王世子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從官兼弼善捧爵跪進禮貌官贊請執爵獻爵王世子執爵獻爵以爵授從官兼文學奠于神位前禮貌官贊請俯伏興平身王世子俯伏興平身禮貌官引王世子出戶詣配位尊所西向立執事者舉幕酌酒從官以酌受.酒禮貌官引王世子詣四聖神位前行禮竝如上儀訖東一位奉爵文學奠爵兼司書西一位奉爵兼文學奠爵司書東二位奉爵弼善奠爵說書西二位奉爵弼善奠爵說書禮貌官引王世子降復位初配位酌獻將畢執事者分詣殿內及兩廡從享神位前助奠訖俱復位贊者唱四拜禮貌官跪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學生皆四拜禮貌官引王世子還便次陪衛如常儀.

섯 곳에서 절을 했다. <작헌의>를마치고 왕세자는 명륜당으로 이동한다.



<그림 3> 《왕세자입학도》 <작헌의>  
출처:<https://blog.naver.com/kbctthink/222340355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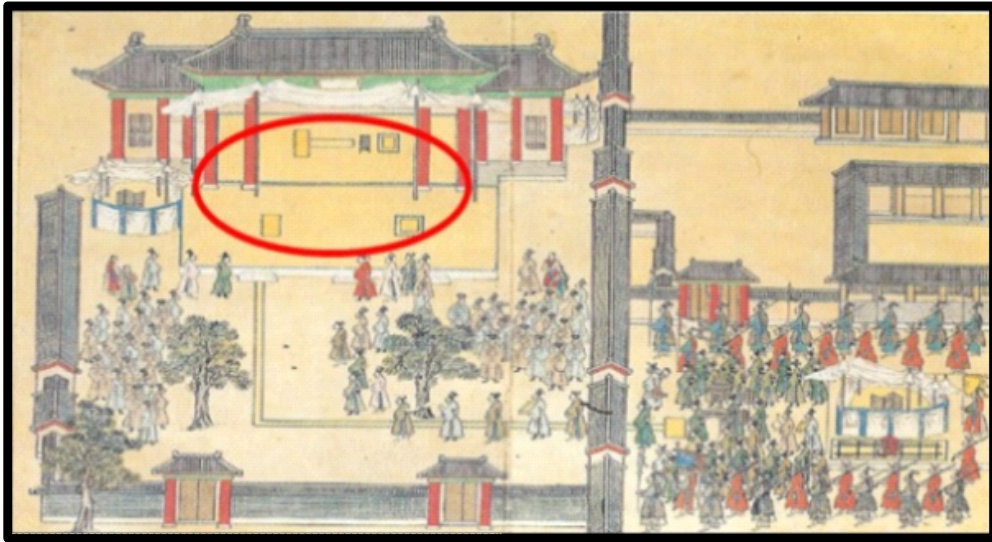


<그림 4> 성균관 동삼문  
<출처:<https://blog.naver.com/yhlim112/220228361568>>

### (3) 왕복의(往復衣)

대성전에서 작헌의를 마치고 왕세자는 명륜당으로 이동하여 <왕복의>를

준비한다. <왕복의>는 왕세자가 명륜당에서 스승에게 수업을 청하는 절차이다. <왕복의> <그림 5>와 태학계첩(성균관의 옛 건물 구조와 배치 상태 모습)의 명륜당 <그림 6>, 현재 성균관 배치도 <그림 7>을 비교해보면 편차의 위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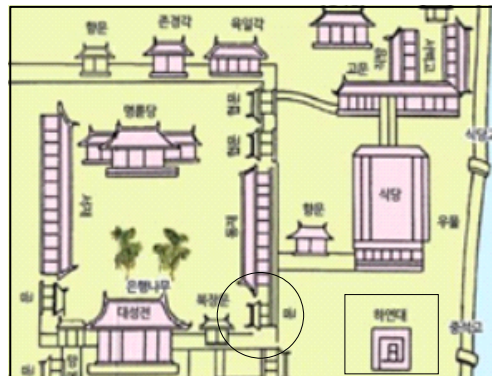
<그림 5> 《왕세자입학도》 <왕복의>

출처: <https://blog.naver.com/kbcthink/222340355496>



<그림 6> 태학계첩 명륜당

<http://www.skku.or.kr/skin/성균관홈페이지>



<그림 7> 성균관 배치도

<http://www.skku.or.kr/skin/성균관홈페이지>

이들 세 그림을 비교하면 왕세자의 대기 자리를 알 수 있다. <그림 7>의 파랑색 네모 표시가 하연대이다. 이곳에 편차가 마련되는데 이 편차에서 왕세자는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쉬거나 다음 절차를 준비한다. 이때 왕세자가 들어간 문은 <그림 7>의 동그라미 표시라 추정할 수 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왕세자는 박사에게 스승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한다.

입학할 때가 되면 예모관은 편차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편차에서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왕세자는 학생복을 입고 나오면 보덕은 세자를 모시고 명륜당 대문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을 바라보고 선다. 모시 세필, 술 두 말, 마른고기 다섯 묶음을 왕세자 서쪽에 진열하고 북쪽을 향해서 여러 겹으로 서고 서쪽으로 오른다. 박사(우빈객 정 2품)는 공복을 입고 집사자가 안내하여 명륜당 동쪽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서쪽을 향해 선다. 장명자(將命者)가 나와서 문의 서쪽에 서서 동쪽을 향해서 “감히 일을 청하옵시오” 라고 한다. 왕세자는 앞으로 나아가, “아무개가 선생에게 수업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장명자가 들어가서 아뢴다. 박사는 “아무개는 부덕하여 왕세자를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장명자가 나와서 아뢴다. 왕세자는 다시 청하여 “아무개가 선생에게 수업을 원합니다” 라고 한다. 장명자가 들어가서 박사 “아무개는 부덕합니다. 청컨대 왕세자께서 자리로 가시면, 모가 감히 만나겠습니다” 라고 한다. 장명자가 나와서 아뢰면 왕세자는 “모는 감히 빈객을 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끝내 뵈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말한다. 박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왕복의> 에서 왕세자는 성균관에서 학생복 차림을 하고 있다. <왕복의> 에서부터 <수폐의>까지 성균관 학생 중에 뽑힌 장명자(將命者)가 박사와 왕세자 사이에 말을 전한다. <왕복의>에는 박사에게 모시 세필의 한 광주리, 두 말 분량의 술 한 병, 안주 육포 등 다섯 묶음의 예물을 들고 나서고 이를 왕세자는 서쪽에 이것들을 진열한다. <왕복의> 절차에서 왕세자는 서쪽

에서 동쪽을 향해 서는데, 이는 왕세자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박사는 동쪽에, 왕세자는 서쪽에 위치함으로써 그 변화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동과 서는 방위를 나타내고, 신분의 고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동쪽은 서쪽에 비해 높은 위치로 신분이 높은 사람의 자리로 정한다.

《문효세자보양청계병》<sup>43)</sup>을 보면 평상시 왕세자의 수업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sup>44)</sup> 평소 왕세자는 동쪽벽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보양청 관원은 세자의 스승이지만 왕세자보다 낮은 신분이므로 서쪽벽에서 동쪽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효세자보양청계병》에서도 왕세자는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연을 할 때 왕세자는 서연복(書筵服)을 입는다. 관례를 치르기 전이라면 공정책에 곤룡포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입학례를 행하는 날만은 왕세자는 학생의 신분이므로 서쪽에 서고, 박사는 동쪽에 서도록 하여 스승으로 예우를 갖춘다. 왕세자는 박사에게 스승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왕세자가 청하면 장명자가 전달하며, 박사는 왕세자의 청을 두 번 거절하고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 (4) 수폐의(脩幣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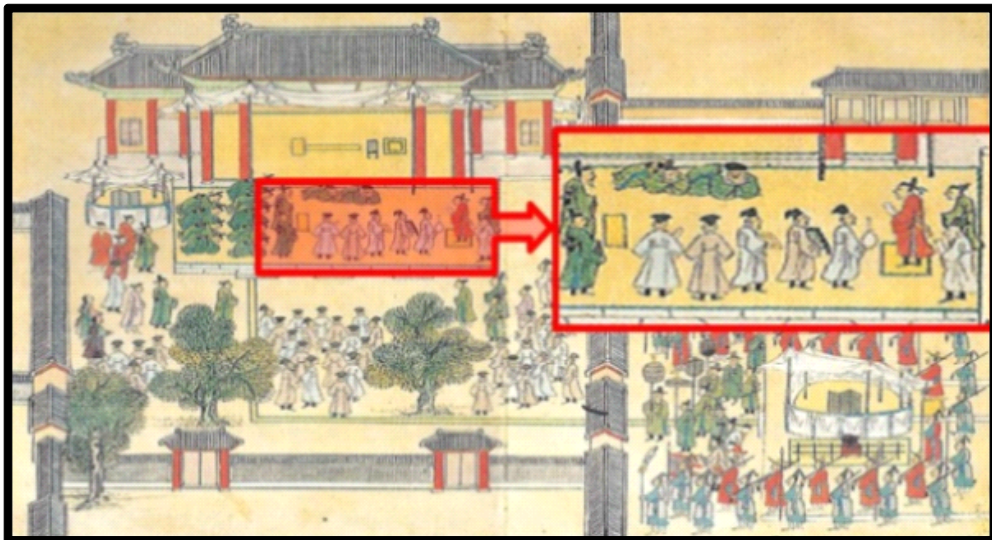
<수폐의> 절차는 왕세자가 박사에게 스승이 되어 줄 것을 청한 후, 감사의 의미로 예물을 박사에게 전하는 것이다. 왕세자가 준비한 예물 백비(帛篋), 술, 안주 세 가지를 박사에게 전한다. 다음은 <수폐의> 원문이다.

집비자(執篋者) 모시를 가진 자가 비(篋)를 가지고 동쪽으로 향해서 왕세

43) 국립중앙박물관, 정조의 첫 번째 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86)가 1784년 1월 두 명의 보양관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하는 의식을 그린 8폭 병풍으로 구성된 궁중행사도이다.

44) 민길홍, <문효세자 보양청계병>-1784년 문효세자와 보양관의 상견례행사, 이때 원자는 쌍옥도, 아청색 단령, 흉배와 옥대와 흑화자를 하고 동계에 올라 동벽에서 서향을 하고, 보양관은 흑단령을 갖추 입고 세계에 올라 서벽에서 동향을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궁중 행사도 II,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미술자료 80, 국립중앙박물관, 2011, pp.97-114.)

자에게 가면 왕세자는 모시를 들었다가 다시 집비자에게 준다. 집비자가 먼저 가고, 보덕(輔德)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간다. 주호와 수안을 들고 있는 자가 뒤를 따르면 박사는 내려와서 동쪽 계단 아래에서 서쪽을 향해 선다. 왕세자는 명륜당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고 박사는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서쪽을 향해 선다. 집비자가 무릎 꿇고 왕세자의 오른쪽으로 나아간다. 왕세자가 백비(帛篚)를 들고 두 번 절하면 박사도 두 번 절하여 답례한다. 왕세자는 무릎 꿇고 백비를 박사에게 바치고 술과 마른고기를 들고 있는 자가 뒤따라와 박사 앞에 놓는다. 박사는 무릎 꿇고 백비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는 무릎 꿇고 술과 마른고기를 받고 물러간다. 보덕은 왕세자를 안내하여 북쪽의 명륜당을 향해서 두 번 절한 후 명륜당 문안에 설치된 편차로 나아가서 기다린다.<sup>45)</sup>



<그림 8> 《왕세자입학도》 <수폐의>

<출처: <https://blog.naver.com/kbctthink/222340355496>>

45) 《왕세자입학도》 <수폐의>, 執篚者以篚東向進王世子王世子執篚還授執篚者執篚者先導輔德引王世子入門而左(繖扇陪衛正於門外)捧壺脩案者次之博士降俟于東階下西向王世子從明倫堂西階以上博士陞自東階上西向立執篚者跪進於王世子之右王世子執篚跪奠再拜博士答再拜王世子跪取篚以進捧酒脩者從奠於博士前博士跪受篚授執事者又執事者跪取酒脩以退輔德引王世子北向明倫堂再拜訖出就便次(設於堂門內)以俟”

<그림 8>은 <수폐의>의 그림이다. <왕복의>에서는 왕세자와 박사의 위치가 틀이었는데, <수폐의>에서는 계단 위로 이동하였다.

#### (5) 입학의(入學儀)

<입학의>는 입학례의 핵심 절차로 효명세자가 스승에게 교육을 받는 절차이다. <수폐의>에서 예물을 받은 박사와 왕세자는 비로소 강서(講書)를 시작한다. 다음은 <입학의>의 절차이다.

박사는 흑단령으로 갈아입고 명륜당에 올라 자리에 앉는다. 보덕은 왕세자를 안내하여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박사 앞으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강서(읽을 책, 『소학(小學)』)를 박사 앞과 왕세자 앞에 놓는다. 책을 읽고 해석이 끝나면, 집사자가 책상과 책을 치운다. 보덕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편차로 간다. 궁으로 돌아가는 의식은 궁에서 올 때의 의식과 같다.<sup>46)</sup>

다음 <그림 9>에서 왕세자의 위치는 명륜당 박사 앞에 노란색 빈자리이다. 박사에게는 서안(書案)이 있고, 왕세자에게는 서안이 없다. 『국조오례의』에는 책상 사용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입학례 때 집사자는 강의할 책을 자리에 놓는데, 박사 앞에는 책상을 놓는다고 하였지만, 왕세자의 책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1625년(인조 3)과 1652년(인조 23)에 왕세자의 서안 문제에 대해서 임금과 신하 간의 논쟁이 있었다.<sup>47)</sup> 그러나 존사(尊師)의 의미를 주장한 신하들에 의해서 왕세자에게 책상은 허용되지 않았다. 입학례는 왕세자의 권위보

46) 《왕세자입학도》 <입학의>, 博士改具黑團領陞堂就坐(明倫堂東壁西向重席) 輔德 引王世子陞自西階詣博士前(臨時只設席一張) 執事者置講書於博士前及王世子前講書釋義訖執事撤案及書德引王世子降自西階出就便次還宮一如來儀.

47) 육수화, 2008, pp.169-10., 재인용. 김문식, 2010, pp.61-63., 재인용.

다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더 엄격하게 지켜졌기 때문이다.



<그림 9> 《왕세자입학도》 <입학의>

출처: <https://blog.naver.com/kbcthink/222340355496>

#### (6) 수하의(受賀儀)

<수하의>는 왕세자가 <입학의>를 끝내고 궁궐로 돌아온 후, 의식을 마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이다.

.....익위사는 평소와 같이 장위를 설치하고, 사복시관이 평상시처럼 여와연, 그리고 장마(仗馬)를 준비하면 종친과 문무백관은 각기 흑단령을 입고, 시각에 맞추어 문밖의 자리로 간다. 배위하는 관리는 합(閣)에 나아가 왕세자를 봉영한다. 예모관은 합 밖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준비하십시오”라고 하고 바깥이 준비되었음을 말한다. 왕세자는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고 나와서 자리에 앉는다. 배위는 보통 때와 같다. 궁관과 집사관은 서문을 통해 들어와서 시강원과 집사관은 동쪽에 서고, 익위사는 서쪽에 선다. 여러 줄을 이루되 북쪽을 향해서 서로 머리를 보게 한다. 두 번 절하는 것

이 끝나면, 각기 제 자리로 간다. ...인의(引儀)가 나누어 종친과 문무 2품 이상을 인도하여 들어온다. 예모관이 왕세자의 자리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일어서십시오” 라고 청한다. 왕세자가 일어나 자리 앞에 선다(만약 사, 부와 이사가 있으면 왕세자는 동쪽 계단 아래에 내려가서 선다. 사·부와 이사가 계단에 이르면 왕세자가 자리 앞에 올라와 선다). 예모관은 부복했다가 일어나서 배위로 돌아간다. 인의는 나누어 종친과 문무 2품 이상을 인도하여 서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당(堂) 중의 배위로 안내한다. 찬의가 “허리를 숙여 두 번 절하고, 일어나 허리를 펴십시오” 라고 말하면, 2품 이상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일어난다. 왕세자는 답례로 두 번 절한다. ...대치사관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와 왕세자 자리 앞에 나아가 동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다. 찬의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2품 이상은 모두 무릎을 꿇는다. 왕세자도 무릎을 꿇는다. 대치사관이 왕의 치사를 읽어 치하를 마치면, 치사를 함에 다시 넣고, 승문원관은 치사함을 받들고 무릎을 꿇고 의정(의정) 앞에 바친다. 의정은 함을 받아 승언에게 주면 승언은 함을 받고 들어간다. 찬의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십시오” 라고 말하면, 2품 이상은 모두 부복했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일어난다. 왕세자는 답례로 두 번 절한다. 인의가 나누어 2품 이상을 인도하여 나간다. 예모관이 무릎을 꿇고 “자리에 오르십시오” 라고 하면, 왕세자는 자리에 오른다. 인의가 나누어 3품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가 배위로 안내한다. 찬의가 “허리를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십시오” 라고 말하면, 3품 이하는 허리를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난다. 예모관이 무릎을 꿇고, “예가 끝났으니 부복했다가 일어나 배위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한다. 왕세자는 자리에서 내려와 내전으로 돌아간다.

... 48)

48) 《왕세자입학도》 <수하의>, 行禮時至宮官各服其服(文官黑團領武官器服)翊衛司勒所部陳仗衛司僕寺官陳輦輦及仗馬竝如常宗親及文武百官各服黑團領依時刻就門外位陪衛之官(翊衛二人佩雲司禦二人佩弓矢)詣閣奉迎禮貌官詣閣外跪贊請內嚴少頃又白外備王世子具遠遊冠絳紗袍出卽座陪衛如常(翊衛二人分立左右司禦二人分立座後)宮官及執事官由西門入庭分東西(侍講院及執事官在東翊衛司在西)重行北向相對爲首再拜訖各就位(輔德以下分入堂內左右陪座左右翊衛以下分立庭之東西若師傅貳師來賀則惟禮貌官入陪餘皆

왕세자는 학생 신분에서 다시 왕세자 신분으로 복귀하고, 종친 백관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축하의 시를 읊는다. 왕세자는 신하들의 인사를 받으며 선물을 하사하고, 의식을 마친다. <그림 10>은 「수하의」그림이다.



<그림 10> 《왕세자입학도》 <수하의>

출처: <https://blog.naver.com/kbcthink/222340355496>

왕세자 입학례는 유학의 맥을 잇는 학생 신분의 의미가 크다. <수하의> 장면은 왕세자가 성균관에서 다시 궁궐로 돌아간 뒤 시민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다시 왕세자의 신분으로 되돌아간다. 왕세자는 입학례에 있어서 중화문과 이극문을 거쳐 창경궁 홍화문을 통해 궁을 나와 성균관을 향하는 <출궁의>로 시작하여, 성균관에 도착한 후 먼저 대성전에 술잔을 올리는 <작헌의>를 한다. 문묘에 작헌을 올린 후에 왕세자는 명륜당으로 향한다. 명륜당에서는 <왕복의>와 <수폐의>, 그리고 <입학의>가 차례로 진행된다. 진행되는 장소는 절차별로 각기 다른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 왕세자 입학례가

仍立於庭之東西)引儀分引宗親文武二品以上入禮貌官詣座前跪贊請興王世子興立於座前(若有師傅貳師則王世子降立於東階師傅貳師至階下王世子陞.

진행되는 절차와 공간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왕세자입학도》 절차별 장소

순서	내용	절차별 세부 장소
① 출궁의	효명세자가 동궁에서 성균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	동궁(중화문 이극문) →창경궁홍화문→성균관
② 작헌의	효명세자가 공자와 네 성인에게 작헌하는 장면	성균관 대성전
③ 왕복의	효명세자가 성균관 박사에게 수업을 청하는 장면	성균관 명륜당 아래 계단 밑
④ 수폐의	효명세자가 박사에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	성균관 명륜당 아래 계단 위
⑤ 입학의	효명세자가 박사에게 수업을 받는 장면	성균관 명륜당 마루
⑥ 수하의	입학의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온 효명세자에게 문무관원 및 종친들이 축하하는 장면	시민당

<출처:손윤혜, 조선후기 왕세자 입학 고증, 2012. p.37.>

왕세자의 입학례가 성균관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으로서의 왕세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장면이 있다.

첫째, 왕세자가 학생복을 입는다는 점이다. 입학례에서 의관을 교체하여 복장을 갈아입는 사람은 왕세자와 박사이다. 왕세자는 출궁할 때 상복인 곤룡포와 익선관을 착용하고 성균관에 이르게 되면 옷을 갈아입고, 다음 단계인 <작헌의>와 작헌의 전 과정에서 학생복을 입고 참여한다. 왕세자의 사부 자격으로 참여하는 대제학(大提學)인 박사는 <왕복의>와 <수폐의>에서는 공복을 착용한 후 강독(講讀)을 하는 <입학의>에서는 흑단령인 상복(常服)으로

바뀌 입고 의식에 참여한다. 전체적으로 문관과 세자시강원 제작익위사는 상복을 착용하며 무관은 용복(戎服) 차림을 한다. 또한, 학생으로서 <작헌의> 시 차출되는 집사자와 입학의에서 관내에서 도열하여 의식에 참여하는 성균관 학생인 유생은 청금복을 입는다. 입학례를 치르는 왕세자 그림은 생략되어 형태적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원문을 보면 왕세자는 장소에 따라 복식을 바꿔 입는다. 왕세자가 출궁할 때는 서연복(書筵服)을 입고, 성균관에서 작헌을 하고 입학례를 할 때는 학생복으로 갈아입고 의례를 하였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 시민당에서 입학례를 하는 축하 자리에서는 원유관복을 입었다.<sup>49)</sup>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입학례의 장소와 절차에 따른 왕세자의 복식 변화

절차		장소	왕세자 복식
출궁의		창덕궁	서연복(書筵服)
입학의	작헌의	대성전, 명륜당	학생복
	왕복의		
	수폐의		
	입학의		
수하의		시민당	원유관복

<출처:손윤희, 조선후기 왕세자 입학 고증, 2012. p.45.>

<표 8>을 살펴보면 장소와 행사의 절차에 따라 왕세자의 복식은 달라졌다. 절차에 따라 왕세자의 권위적인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라고

49) 손윤희, 조선후기 왕세자 입학 고증,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볼 수 있다.

둘째, 왕세자가 명륜당에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이다. 박사는 책상 위에 책을 펴놓고 강의를 하지만, 왕세자는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책을 보았다. 스승이 동쪽에 앉아 책상을 사용하고, 왕세자는 서쪽에 꿰어앉아 바닥에 엎드리게 되는데 이는 스승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 신분이라도 유학을 배우는 학생 자격으로 스승에 대한 예를 지키고, 수련을 통하여 학문과 덕망을 갖춘 성군(聖君)으로 나아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625년 인조는 왕세자 입학식 때 왕세자가 사용할 책상을 만들라고 명하였는데, 예조에서는 이에 반대하였다.

입학례의 성대한 의식은 한 나라의 최대 경사입니다. 조종 조에는 이미 내려오는 절목이 있는데, 책상은 박사 앞에 두고 세자는 자리만 깔고 책을 받는 것으로 스승과 생도의 예를 실천합니다. 이는 실로 옛 입학례의 제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책상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sup>50)</sup>

효종은 왕세자인 현종의 입학례 때 “어째서 스스로 낮추는 예 때문에 경전을 바닥에 놓는단 말인가” 라고 하며 경전 존중을 명분으로 왕세자가 바닥에 엎드리는 것을 제지하고자 했었지만, 신하들은 스승과 제자의 예를 우선으로 완강히 반대하였다.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서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시강관들이 이 교육을 수행하는데, 성균관 입학례를 치르는 의식은 학생으로서 지위를 자각시키고자 함은 물론 성균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뜻도 있었다.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례는 조선이 유교 국가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고, 스승을 공경하고, 소학교육의 이념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었다.

50) 장재천, 조선시대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례, 韓國思想과 文化 第 55輯, 2010, pp.290-295.

### 3. 선행 연구

왕세자 입학례에 관한 선행 연구는 왕세자의 교육의례, 효명세자의 《왕세자입학도》 연구, 복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첫째, 왕세자 교육의례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장재천<sup>51)</sup>은 성균관에서 입학례를 거행하는 이유와 기원을 규명하였고, 입학례의 절차와 그 의의에 대해 논하였다. 정희정<sup>52)</sup>은 왕세자 입학례에서 각 의식절차의 의례적 의미와 변화, 공식적인 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입는 서연복(書筵服)<sup>53)</sup>이 아닌 학생으로서 입은 청금복(靑衿服)과 관련자 복식을 고찰하고 흐름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순관<sup>54)</sup> 등은 《왕세자입학도》에 대한 의미와 제작 시 사용된 안료, 목재, 첩의 종류, 제작 방법 등을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선왕조 행사기록화』<sup>55)</sup>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되어있는 조선 궁중 행사기록화를 중심으로 관련 화보, 연구논문, 재연 행사 사진 등을 첨부하여 조선시대 행사기록화의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있다. 그 중 《왕세자입학도》의 구성과 내용상의 특성, 여타의 이본들을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왕세자입학도》의 제작양상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왕세자입학도》의 제작 시 사용된 안료와 표지 목재, 첩의 종류와 제작기법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규명하고 있다.

박종배<sup>56)</sup>는 교육이상(教育理想)의 의례화(議禮化)와 교육(教育)의 방법으로 입학례를 이상의 의례화의 범주에 넣어 입학의 시원부터 고찰하였다. 한형

51) 장재천, 조선시대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례, 韓國思想과 文化 55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pp.281-295.

52) 정희정,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 절차와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p.13-70.

53) 왕세자의 상복(常服)인 곤룡포, 왕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글을 읽고 학문을 닦는 것이 주된 업무라 하여, 왕세자의 상복을 서연복(書筵服)이라 부른다.

54)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재 보존연구7』, 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과, 2010, pp.14-131.

55)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연구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p.45-175.

56) 박종배, 朝鮮時代 學校議禮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주<sup>57)</sup>는 조선 초기 왕세자가 참여하는 국가 의례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김문식<sup>58)</sup>은 왕세자의 입학례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효명세자의 입학도첩을 설명한 단행본을 발행하였다. 윤정<sup>59)</sup>은 국왕의 문치(文治)사상을 연구하면서 입학례와의 제관계를 조명하였고, 육수화<sup>60)</sup>는 정조의 성장 과정을 통해 바라본 왕위계승 교육에 대한 입학례를 연구하여 왕세자 교육의 목적을 존사(尊師)와 소학교육의 이념을 널리 깨우치게 하기 위함으로 전제하고 그 목적에 교학(敎學)이 위정(爲政)에 있어 그 근본이 있다 하였고, 도통(道統)의 승계(承繼)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외에 왕세자의 교육에 대해 왕세자가 거쳐야 하는 교육 의식의 일환으로 고찰한 많은 연구<sup>61)</sup>가 있다. 이는 왕세자 생애에서 교육을 통해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議禮)를 연구한 내용들이다. 실제 왕세자 입학례의 의례 절차를 분석하는 연구 내용이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박정혜<sup>62)</sup>는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과 궁중기록화와 왕세자 입학도

57) 한형주, 조선초기 왕세자의 국가의례 참여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회 제30호, 2009.

58) 김문식, 왕세자 입학식, 서울:문학동네, 2010.

59) 윤정, 18세기 국왕의 ‘文治사상연구’ - 祖宗의 재인식과 ‘繼志述事’ 실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조는 (君師)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입학례를 배제하였다. 이는 공자(孔子)가 君師가 단절되고 君道와 師道로 나누어질 때 사도를 전수하였기 때문이며, 입학례에서 문묘에서 공자에게 酌獻을 드리는 의식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도에 대한 예를 표하여 군주의 권위가 신료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군사(君師)를 왕과 그 계승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7.

60) 육수화, 正祖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왕위계승교육,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61)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교육, 서울:김영사, 2003.

김문식, 군사 정조의 교육정책 연구, 민족문화 23, 2000.

김문식, 소현세자의 왕세자교육,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제18집, 2011.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2008.

김종률, 조선조의 왕세자교육제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김종원, 조선조 시강원의 교육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김남기, 동궁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세자의 교육-소현동궁일기부터 숙종춘방일기 까지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 22집, 2009.

안인숙, 조선시대 왕세자교육에 대한 연구:정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62) 박정혜,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과 궁중기록화,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 지도, 《왕세자입학도》 영인본 및 해설서, 안그라픽스, 2005.

박정혜 외 2인, 조선시대 왕세자와 궁중기록화,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 지도, 서울, 민속원 2005.

본을 연구하여 왕세자교육에 관련된 기록화 및 왕세자교육에 대해 고찰했다. 한영우<sup>63)</sup>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된 《왕세자입학도》를 고찰하여 그 의주를 살펴보고 왕세자입학의 절차와 도첩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신재근<sup>64)</sup>은 효명세자 《왕세자입학도》의 제작 배경과 이본에 대해 미술사적으로 연구했고, 김순관<sup>65)</sup>은 《왕세자입학도》의 제작기법에 대해 정밀하게 연구하였다.

셋째, 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을 그린 반차도나 도첩 등의 회화자료를 통한 복식 연구<sup>66)</sup>는 복식사 연구 분야의 중요한 자료사적 연구 방법이다. 이은주 등은 왕세자 입학례 복식 관련 연구로 왕세자 출궁도의 복식 연구 I·II<sup>67)</sup>와 이은주<sup>68)</sup>의 《왕세자입학도》등에 나타난 복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지영<sup>69)</sup>외 5인은 왕세자 책례, 입학례 등에 입은 복식을 고찰함으로써

- 
- 63) 한영우, 왕세자입학도의 주인공 효명세자와 그의 입학식, 《왕세자입학도》 영인본 및 해설서 안그래픽스, 2005.
- 64) 신재근, 《왕세자입학도》의 제작 배경과 이본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조 행사 기록화, 대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에 사용된 이본은 국립문화재소장 왕세자입학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왕세자입학도, 연세대도서관 소장 왕세자입학도, 경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정축입학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참의공사 연도로 5본이다., 2011.
- 65) 김순관, 조선후기 궁중기록화 《왕세자입학도》의 제작기법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대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66)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수확사, 1991.
- 67) 이은주, 임재영, 홍나영, 「왕세자출궁도의 복식연구 I-입학례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복식 28호, 입학례의 절차를 중심으로 도첩에 그려진 6장면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각 장면의 주요 참여인물, 왕세자의 장, 의장물, 출궁시 이동경로, 작헌시 사용하는 제기 등에 대한 연구이다., 1996.
- 이은주, 임재영, 홍나영, 「왕세자출궁도의 복식연구 II-복식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복식 31호, 행사별 참여 인물과 복식, 의장, 호위대 복식에 관한 고찰이다. 복식은 도첩에 나타난 복식에 집중하여 분석하였으며, 청금복에 관하여 학생들이 입고 있는 도포가 기록상의 명칭과 다른점에 의문점을 남겼다., 1997.
- 68) 이은주, 「궁중기록화 속의 복식문화 읽기」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기록화를 중심으로 朝儀 士俗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서울 : 고려대학교, 2001. : 고려대학교 소장 기록화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논고, 왕세자가 靑衫, 즉 청사후수청금복(靑紗後垂靑衿服)이라 하여 도포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도첩상에 학생이 입고 있는 도포를 왕세자도 입었다고 분석하였다.
- 69) 김지영 외5인, 왕세자, 이극(貳極)의 자질과 지위를 공인받다. 즉위식, 국왕의 탄생, 파주 : 돌베개, 왕세자가 책례, 입학례 등에 입은 복식을 고찰함에 있어 왕세자가 청사후수청금복(靑紗後垂靑衿服)이라 하여 도포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도첩상에 학생이 입고 있는 도포를 왕세자도 입었다고 분석하였다., 2013.

책봉 후에 성균관에 입학할 함으로 왕세자로서의 자질을 인정 받는 의식을 연구하여 입학례 때 참여자의 복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손윤희<sup>70)</sup>는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왕세자 입학례는 교육의례, 미술사 그리고 복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였다. 왕세자 입학례 연구가 대부분 교육적인 측면 위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으며, 기록 《왕세자입학도》에서 1817년 왕세자 입학례와 복식을 컨텐츠화하기 위한 복식 고증을 연구하여 실제 착용한 복식을 제안하여 왕세자의 청금복을 도포로 분석하여 조선 후기 왕세자 입학례의 복식을 고증<sup>71)</sup> 하였다.화 연구에서도 《왕세자입학도》를 중심으로 왕세자가 참여하는 의례연구를 볼 수 있었으며, 실제 입학 장면을 자세하게 그린 효명세자의 《왕세자입학도》는 복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현대 초등학교 입학식에 관한 연구로 조문현<sup>72)</sup>은 학교 문화로의 입문과정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신입생프로그램 개선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오재길<sup>73)</sup>은 입학식, 조회, 운동회, 졸업식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학교행사문화에 관한 참여관찰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양한 학교 행사중 입학식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 선생님과 선후배의 유대감과 친밀감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갖는다고 했다. 또한 학교문화로서 입문과정의 시작인 입학식을 통해 학습하고 행동하면서 어울리는 방법에

70) 손윤희, 조선후기 왕세자 입학례 복식고증,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817년 왕세자 입학례와 복식을 컨텐츠화하기 위한 복식 고증연구이다. 복식 고증에 관한 점을 1817년에 한정하여 실제 착용하였을 복식을 제안하여 실질적인 복식고증을 하였으나, 왕세자와 학생의 청금복을 고찰함에 있어 「太學志」의 “王世子儒生服軟巾 青紗後 垂青衿服細條帶勒帛黑靴”을 분석할 때 연건, 청사후수청금복, 세조대, 늑백, 흑화로 분석하여 청사후수청금복(靑紗後垂靑衿服)을 후수(後垂)가 달린 청금포라고 하였다. 이에 청금복은 후수(後垂) 즉, 뒷자락이 부착된 도포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하여, 도첩 상에 유생이 입고 있는 도포를 청금복(靑衿服)이라고 지칭하였다., 2012.

71) 손윤희, 이은주, 1817년 효명세자 입학례의 왕세자 복식고증, 문화재 제46권 제1호, : 손윤희의 학위 논문을 일부 발췌하고 수정, 보완한 연구로 논조는 왕세자가 입는 청금복이 도포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3.

72) 조문현, 초등학교 신입생 프로그램 개선연구 : 학교 문화로의 입문과정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학술정보원, 1996, pp.27-43.

73) 오재길, 초등학교 학교행사문화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입학식, 조회, 운동회, 졸업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대해 고찰 하였다.

<표 9> 왕세자 입학례와 현대 초등학교 입학식 연구 및 관련 서적

구분	연구자(년도)	논제	발표기관
왕세자 교육과 의례연구	박종배(2003)	조선시대 학교의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 정(2007)	국왕의 문치(文治)사상을 연구하면서 입학례와의 제관계를 조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육수화(2008)	정조의 성장과정에서 행해진 왕위계승 교육에서 바라본 입학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주(2009)	조선초기 왕세자의 국가의례 참여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회
	장재천(2010)	성균관에서 입학례를 거행하는 이유와 기원을 규명하고 입학례의 절차와 의의	한국사상문화학회
	김문식(2010)	왕세자의 입학례	문학동네
	김순관(2011)	조선후기 궁중기록화 《왕세자입학도》 의 제작기법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순관,정희원 조안나,홍순천 (2011)	《왕세자입학도》에 대한 의미, 제작시 사용된 안료와 목재, 첩의 종류와 제작 방법	국립문화재연구소
	정희정(2016)	각 의식절차의 의례적 의미와 변화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효명세자 입학도 연구	박정혜(2005)	궁중 기록화로서의 왕세자 입학도본을 연구, 왕세자교육에 관하여 고찰	안그래픽스
	한영우(2005)	왕세자입학도의 주인공 효명세자와 그 의 입학식	안그래픽스
	신재근(2011)	《왕세자입학도》의 제작배경과 이본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입학도에 나타난 복식연구	유송옥(1991)	조선왕조 궁중의례복식	수학사
	이은주, 임재영, 홍나영(1996)	왕세자출궁도의 복식연구 I · II	문화재 제46권 제1 호
	이은주(2001)	왕세자입학도에 나타난 복식에 대한 소 고	고려대학교
	손윤혜(2012)	조선후기 왕세자 입학례 복식고증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 외 5인(2013)	입학례 참여자가 착용한 복식에 관한 연구	돌베개
현대 초등학교 입학식에 관한연구	조문현(1996)	초등학교 신입생 프로그램 개선연구 : 학교 문화로의 입문과정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학술정보원
	오재길(2004)	초등학교 학교행사문화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입학식, 조회, 운동회, 졸업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Ⅲ. 입학식에 대한 면접 및 사례

#### 1. 초등학교 입학식에 대한 교사의 견해

##### 1) 입학식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견해

초등학교 입학식의 의미와 기존입학식의 절차에 대한 면접대상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30년이 넘는 교직 생활에서 매년 행해지는 입학식에서 특별한 의미보다는 신입생에게 입학울 축하하는 메시지에 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입학식이어서 시간도 짧게 간단한 절차로 조출한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 소개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절차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민의례, 입학허가서 낭독, 담임 선생님 소개, 학교장 훈화, 교가 제창 순으로 영상화면으로 입학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을 만나 간단한 안내의 절차로 아쉬운 입학식을 마쳤습니다. (면접대상자 1)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담임 선생님의 만남의 의미와 6학년 선배들의 1학년 신입생에게 주는 선물과 인사 나눔으로 1학년 입학생들에 대한 축하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들과 신입생의 동반 입장, 국민의례 담임교사 소개, 교장 선생님의 입학허가서 낭독, 6학년 학생들의 축하선물 증정, 교장선생님의 축하 말씀, 교가 제창, 학급 이동 후 학급생활 안내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면접대상자 2)

새 식구를 맞이한다는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이기에 주소지에 의해 저절로 배정을 받고 입학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온 학교이기에 대부분 자부심과 애정이 깊은 편입니다. 재학생들도 동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 입학식을 함께 지켜봅니다. 절차는 신입생 입장, 국민의례, 신입생 선서, 교장선생님 축사, 꽃다발 증정, 중창단 축하공연, 1학년 담임선생님 축하공연, 교가제창으로 진행됩니다. (면접대상자 3)

저희는 대안학교입니다. 입학식은 늘 새롭습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이기에 대안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절차는 일반학교와 달리 예배당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입학식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배형식이 추가되는 점이 다릅니다. 초·중·고 학생이 모두 같이 입학식에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면접대상자 4)

위와 같이 항상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입학식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축하’의 의미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한편 1학년의 입학식을 축하하는 선배들의 활동에 돋보이는 점이 있다. 부천부안초등학교의 6학년 선배가 1학년들에게 축하와 선물을 주는 순서는 입학식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한 이벤트적인 성격이 드러난 예라 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학식의 절차는 신입생 입장, 국민의례, 교장 선생님의 입학허가서 낭독, 신입생 선서, 교장 선생님 축하 말씀, 축하공연, 교가 제창, 학급으로 이동하여 담임 선생님 만남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대안학교별로 조금씩 성격이 다른 절차로 특성 있는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 2) 코로나19 이후 입학식의 변화에 대한 견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입학식의 절차에 대한 면접대상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시간의 단축, 학부모 참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입학식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 특강을 준비하여 학부모와의 교류 시간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전할 말과 함께 학부모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면접대상자 1)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학교 행사의 금지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입학식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들만이 학급 교실로 이동해 담임 선생님의 환영 인사 말씀과 안내 수준에서 입학식이 진행됩니다. 기존 입학식의 절차보다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면접대상자 2)

코로나19로 부모님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입학식을 지켜보시고, 교장 선생님은 비전홀(입학식장)에서 입학식을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은 각 교실에서 TV로 교장 선생님 말씀 등을 듣고, 입학식을 마친 후에는 어린이들은 각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합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부모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게 됩니다. (면접대상자 3)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서도 시간이 짧게 단축되었고, 원래는 초·중·고 학생 모두 같이 치러졌던 입학식이 따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신입생이 다른 해에 비해 적은 인원수였습니다. (면접대상자 4)

코로나19 이후 입학식 행사는 크게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화되어 진행되었고, 각 교실에서 소수 인원으로 입학식을 치렀다는 것이 제일 큰 변화였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입학식의 실태는 첫째,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입학식을 맞이해야 했고, 축하하기 위한 가족의 참여도 인원이 제한되어야 했다는 것이 기존의 입학식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시간이 다른 때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의 주된 훈화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조사하였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규칙, 생활 안내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르게 인사하기, 예의를 잘 지키는 것에 대해 당부합니다. 코로나19로 매일 등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학교 예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대상자 1)

특별한 훈화 말씀 대신 축하의 의미를 담아 학생들이 공감을 가질 만한 동화책을 선별해 영상으로 보여주며 동화책을 읽어준 후 그 안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말씀해주십니다. 아이들이 더욱 집중해서 듣습니다. (면접대상자 2)

초등학생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축하와 앞으로 학교에 와서 배워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면접대상자 3)

교장 선생님은 대안학교의 특별함과 축하 인사, 그리고 학교 규칙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면접대상자 4)

입학식 때 학교장의 주된 훈화는 학교생활을 잘하기 위한 규칙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었다. 부안초등학교 학교장은 신입생의 눈높이에 맞는 동화책을 읽어줌으로 교육적 의미를 전달하는 훈화 말씀이 특별하였다.

#### 4) 입학식의 절차 변형에 대한 견해

기존의 입학식 절차에서 새로운 절차의 변형에 대한 면접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절차에 대해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전통 입학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시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먼저 학교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전통 입학식의 내용, 사례발표 등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경우 예복 착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절차의 의미 부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면접조사 1)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입학식을 진행했는데, 또 다른 입학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고민해보지 못했지만, 감염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통 입학식이 어떤 내용과 형식이 담긴 것인지, 그리고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나눔이 먼저 필요할 듯합니다. 변화가 된다면 새로운 입학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조사 2)

코로나19가 괜찮아진다면 입학식장에서 입학식을 마치고 나올 때 6학년 선배들이 양쪽에서 서서 환영의 박수를 쳐주면서 입장하는 행사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전통 입학식의 의미를 담아 진행된다면 어린이들에게 의미도 있고 뜻깊은 행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실행해 보고 싶습니다.

다. 사립초등학교이니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단 전통 입학식의 안 소개와 사례발표 등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대상자 3)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기존대로 입학식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입학식이 변 하려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입학식의 절차에 대한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입학식이라는 큰 행사의 절차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네요. (면접대상자 4)

대부분 새로운 입학식의 변형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진 않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성신초등학교(사립) 교장은 매년 새롭게 추가할 입학식을 생각하고 계셨고, 전통의 절차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입학식 형태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전통 입학식 절차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응답이었다.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에 대해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면접대상자들은 전통 입학식 절차에서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는 ‘속수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먼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면접대상자들은 모두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교사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한국 전통의 입학식 모형을 실시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를 대상으로 전통 입학식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현재 입학식에 전통 입학식의 의미와 절차를 함께 실행한다면 새로운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이 구현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2. 초등학교 입학식에 대한 학부모의 견해

### 1)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입학식의 의미와 기대감

예비 학부모와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입학식의 의미와 기대감에 대해 질문하였다.

저희 아이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문산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수도권에 입학할 예정이었지만, 아이를 위해 시골 학교에 입학 결정을 하였습니다. 작은 산골학교이어서인지 우리 아이 혼자 입학 하게 되어 입학식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앞섰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작은 규모로 다소 특별한 입학식을 치렀는데도 더 의미 있고 진지하게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임에도 한 명의 입학생을 위해 대면으로 선생님과 가족의 축하를 받고 입학식에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과 아이에게 필요한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연과 함께 좋은 자연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고, 친구가 없어서 교우 관계에 대해 걱정이 조금 됩니다. 하지만 선후배의 관계가 남달라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대상자 1)

유아가 아닌 어린이로 학생이 되어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는 첫발의 의미로 두려움과 기대감을 갖고 있을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학교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지, 부담을 느끼고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면접대상자 3)

초등학교 입학식의 의미는 학교라는 소속감을 갖게 하고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는 아이에게도 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19로 학부모 참여도 어렵고 기대감보다는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면접대상자 5)

첫 시작의 단추인 입학식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입학식에서 아쉬움이 더 컸다고 응답했고, 처음 학교를 보내면서 설레임과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2) 입학식 때 학생의 복장과 이벤트에 대한 견해

입학식 때 입는 복장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혼자 입학식을 하다 보니 옷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고, 평소 입는 옷으로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혔습니다. 가방도 학교에서 준비해주셨고, 따로 새것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 기념사진과 식사를 했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과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특별했습니다. (면접대상자 1)

복장에서 첫인상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첫 이미지가 단정하고 바르게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 복장을 준비하는데 편리함과 단정함이 보여지는 새 옷을 준비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지는 않고요, 입학식이 끝나면 축하해주려 와준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입학식을 마무리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의식도 하기 어렵고 해서 집에서 간단히

준비합니다. (면접대상자 3)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첫인상의 이미지를 옷차림에서 표현하기 위해 복장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단정하고 깨끗한 옷으로 미리 준비하여 입학식에 착용한다고 응답했다. 입학식 때 특별한 이벤트 준비는 없었다는 공통적인 내용이었다. 꽃다발 증정과 기념사진을 찍고, 축하해주러 함께 참석한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입학생과 가족의 인원 제한으로 축하의 자리가 조금은 약소하게 진행되었는데, 면접대상자 1의 경우 학생 혼자 입학하게 되어 부모님과 가족이 모두 참석하는 입학식이어서 축하의 시간을 여유롭게 가졌다고 하였다. 코로나19로 가족 참석이 어렵고, 영상으로 입학식을 보게 되어 친척의 초대도 어렵고, 가족과 외식도 힘든 상황이라 집에서 간단하게 축하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 3) 입학식 때 학부모로서의 마음가짐

입학식 때 학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로서의 본격적인 첫걸음이니 더욱 긴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면접대상자 1)

학부모로서 역할이 더 걱정되기는 하지만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대상자 2)

배움을 주시는 선생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 교우 관계를 위한 따뜻한 포용력,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존감을 갖고 입학식을 시작한다면 정말 훌륭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적응해야 할 아이와 늘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아가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면접대상자 3)

아이에게도 처음이지만 학부모로서도 처음이니 아이와 함께 열심히 할 것을 서로 응원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면접대상자 4)

아이의 새로운 출발에 응원과 격려를 하고 동시에 엄마의 성장에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합니다. (면접대상자 5)

학부모들의 마음가짐은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다짐이 공통적인 응답이었다. 입학하는 자녀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친구도 포용하고, 자기 존중감을 가질 것을 희망하였다. 입학은 아이도 처음이지만 학부모로도 처음이라 남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게 되었다고 했다.

#### 4)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입학식에 대한 의견

현재 각 학교별로 참여자들이 대면해서 진행하던 입학식은 코로나19 이후 입학식의 절차와 풍경이 변화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입학식에 대한 면접대상자 학부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혼자 입학식을 하게 된 특별한 경우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생님과 가족과 전교생의 축하 속에서 의미 있고 특별한 입학식을 치를 수 있어서 시골학교에 입학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도 만족스러운 입학식이었습니다. (면접대상자 1)

인원이 적은 시골학교의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입학식이 진

행되어 즐거운 입학식이었습니다. (면접대상자 2)

코로나19로 인해 의미 있는 자리에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 친구들 얼굴도 온전히 마주할 수 없는 입학식, 심지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입학식을 하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배정된 반으로 가서 아이 자리도 확인하고 교과서도 받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인사하는 즐거운 입학식 풍경이 그립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지만 평생의 기억으로 남은 입학식의 모습이 컴퓨터 모니터의 영상이라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면접대상자 3)

코로나19로 인해 첫아이의 입학식에 대한 의미와 감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아이는 대면으로 입학식을 치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면접대상자 4)

코로나19로 대부분 아이들만 강당과 교실로 들어가고 학부모들은 밖에서 기다렸다가 끝나고 귀가하는 입학식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면접대상자 5)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화면으로 치러진 입학식에서 학부모의 아쉬움이 매우 크고, 입학식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도 많이 떨어진다는 응답이었다. 평생 한 번인 초등학교 입학식이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 5) 기존입학식과 다른 특성 있는 입학식에 대한 견해

‘왕세자 입학식’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들은 후, 기존입학식의 절차에서 새롭게 한국 전통 입학식의 의미를 담은 특성 있는 입학식의 변화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면접대상자인 학부모가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전통 입학식을 본 적은 없는데, 가능하다면 꼭 해 보고 싶고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옷도 우리 한복을 입는다면 더 멋진 입학식이 될 것 같아요. 둘째는 한복을 입혀서 입학식을 해야겠습니다. (면접대상자 1)

시대가 변한만큼 다양한 모습의 입학식 행사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네요. (면접대상자 2)

첫 시작을 알리는 입학식을 좀 더 의미 있게 실행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이 짐도 달라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듯합니다. 예전에 전통적으로 입학식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청사초롱을 들고 입장하여 스승님께 절을 올리는 입학식, 전통과 예절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특성 있는 입학식이 실행되길 희망합니다. 전통적인 입학식의 형태가 매우 신선하고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특별한 입학식이라 생각합니다. (면접대상자 3)

기존의 학교마다 시행되는 획일적인 입학식 보다 평생 기억에 남을 입학식을 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대상자 4)

특별히 기존과 다른 입학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행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면접대상자 5)

학부모 면접조사 결과 초등학교 입학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바뀐 입학식의 형태가 입학식의 의미를 조금은 퇴색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과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예전처럼 우리 아이의 새로운 출발을 모두 함께 모여 응원하고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입학식이 되었으면 하는 응답이었다. 전통 입학식에 대해서

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고, 보편적으로 진행되어 온 입학식의 형태에서 새로운 전통 입학식의 의미와 절차로 변형되는 의견에는 대부분 찬성하였다. 일부 회의적인 반응은 보인 경우도 있었지만, 전통 입학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도 알 수 있었다.

### 3. 국내외 학교의 입학식 사례

국내외 입학식 사례는 국내 4개교 사례와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 한국국제학교 재외 한국국제학교 등 해외 4곳의 입학식 사례를 조사하였다.

#### 1) 국내사례

##### (1) 설천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입학식

전북 무주군 설천면 설천초등학교와 설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21년 전교생이 한복을 입고 등교해서 아주 특별한 시업식과 입학식을 선보였다. 새로 만나는 담임 선생님과 첫 만남을 갖는 유치원생까지 전교생 107명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등교해 시업식과 입학식에 참여했다. 학년별로 통일해서 입은 한복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뜻깊게 사용하고자 교직원 협의한 결과, 시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전체적 행사에 우리 전통의 멋을 살리고 계승하는 의미에서 한복을 입기 위해 한복 무상 지급이 결정되었다.” 고 밝혔다. 교장은 “일회성으로 그칠 예산 사용보다

오랜 기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했다.”며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이 끊임없는 고민으로 학생 저마다의 개성에 맞는 색다른 수업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고 했다.<sup>74)</sup> 이 학교는 시골의 소규모학교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가 반영된 뜻깊은 입학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될 만한 사례이다.



〈그림 11〉 무주 설천초등학교  
 입학식출처:<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3323>

## (2) 남평중학교 입학식

남평중(다도분교장 포함) 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이 2021년 3월 5일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EBS 프로그램 ‘행복한 교육 세상’에 소개되었다.

입학례부터 세책례까지 꾸준히 찾상 머리 인성교육을 추진해 온 남평중학교와 다도분교장은 세책례와 진다례를 테마로 한 졸업식에 이어 조선시대 왕세자의 입학례를 계승한 ‘입학 청원과 승인식’을 가졌다. 2019년 입학

74) 산골 초등학교의 특별한 등교식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3323> 에서 검색 2021.03.04.

식은 재학생 20명이 준비한 청사초롱 사이로 신입생들이 입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남평중과 다도분교장 연합밴드 로드잡의 축하와 손을 씻는 세수(洗手) 의식, 청원서(請願書) 낭송하고 입학 승인을 받았다. 이어 속수례(束修禮) 의식 및 진다례, 그리고 신입생과 재학생 상견례 등으로 입학례가 진행됐다. 남평중학교 입학례의 핵심은 과거 왕세자 입학례와 같이 스승에게 세 번의 걸쳐 가르침과 배움을 간청하는 청원과 학교장의 허락을 받는 입학 승인 과정이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 시민까지 참여하는 뜻깊은 교육의례임을 볼 수 있었다. 학교장의 입학 승인을 받고나면 속수례가 시작되는데, 이는 그 옛날 입학을 허락받은 제자가 공자에게 비단 한 필, 술 한 병, 육포를 올렸다는 속수례의 절차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신입생들은 사랑의 회초리와 학생들이 정성껏 우린 향기로운 차(茶) 선생님께 드리는 진다의식을 보였다. 차를 받은 교사는 신입생들에게 덕담을 내려주고 바른 자세와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이 절차는 선생님에 대한 공경과 제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매우 의미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2〉 남평중학교의 특별한 입학식  
출처: <http://kwangju.co.kr/article.php?aid=1551970800655908135>

특히 입학례 마지막 단계에서 전체 학생이 스승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

는 장면은 아름다운 참교육을 예고하는 절정의 순간이 되었다. 입학 승인서를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3년 동안 교과연계 차예절 교육, 전국 차예절 경연대회 참가, 스승의 날 진다례, 학생·학부모·교직원별로 문화와 소통의 Tea-Party 등 ‘찾상머리 인성교육’을 받는다. 남평중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의 입학례와 세책례는 지역사회의 인프라인 나주향교와 남평향교를 교육 활동에 접목한 사례”라며 “잊혀가는 스승과 제자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스승과 제자의 위상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직원 전체의 정성을 담아 마련한 자리다”고 밝혔다.<sup>75)</sup> 이러한 입학식은 학생들에게도 ‘이 학교에 오길 잘했다.’는 반응으로 미루어 매우 뜻깊은 행사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함평 영재교육원 입학식

함평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는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 절차 중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허락받는 예를 접목한 특색있는 입학식을 실행했다. 2020년 입학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10명 안팎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입학식을 영상으로 제작해 참석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온라인으로 제공되었다. 대표 학생들은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을 갖추고 ‘속수례’에 참여했다. 학생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스승께 학업을 청하는 예를 갖추었고, 대표 스승은 입학을 허락하며 화답했다. 또한, 제자와 스승은 함께 절을 하면서 예를 올리고, 사제간의 배움과 가르침을 다졌다. <입학의> 절차로 논어의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와 소학의 「사사여친 필경필공(事師如親 必敬必恭)」을 스승과 학생이 함께 낭독하면서 배움의 즐거움

75) 남평중학교 독특한 전통입학식 ‘화제’, /나주=손영철 기자 ybson@광주일보, <http://kwangju.co.kr/article.php?aid=1551970800655908135> 에서 검색 2019.03.08.

과 학습에 임하는 자세를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그림 13> 2021 함평영재교육원 전통입학식  
출처:<http://www.nbnnews.co.kr/news/>

함평 영재교육원 전통 입학식에 참여한 학생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절을 해주실 때 선생님의 사랑을 느꼈다. 2020학년도 영재원 생활이 기대된다.”는 반응도 보였다.<sup>76)</sup> 함평 영재교육원의 입학식에는 제자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속수의>와 <왕복의>를 뜻을 담아 뜻깊은 전통 입학식을 실행한 사례이다.

#### (4) 지구촌학교 개교식 및 입학식

지구촌학교는 2011년 11월 15일 국내 최초의 사립 대안초등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2012년 3월 2일 서울 ‘지구촌학교’의 개교식 및 입학식이 있었다. 2011년에는 가나, 필리핀, 인도 등 8개국 30여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 예비학교로 운영해왔다. 지구촌학교는 다문화 특성화 교육이 정규 초

76) kps204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604> 에서 검색 2021.05.07.

등학교 교육과정에 결합된 국내 최초 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이다. 다문화 어린이는 물론 중도입국한 어린이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을 원하는 한국인 어린이에게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입학식은 3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와 2부에서는 교직원과 재학생 소개와 인사, 내외 귀빈과 함께 지구촌학교 재학생의 테이프 컷팅, 영상물 상영, 기념촬영이 있었다. 3부 행사는 학교 전체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가정의 장점을 살려서 다중언어 전문가로 양성하는 지구촌학교의 입학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나라별 고유의 전통 의상을 입었다.<sup>77)</sup>



<그림 14> 서울 ‘지구촌학교’ 개교식 및 입학식  
<https://blog.naver.com/rky5203/222571632276>

## 2) 해외사례

### (1) 일본 초등학교 입학식

일본 초등학교(소학교) 입학식은 란도셀을 메고 입학식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코스이다. 란도셀 위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입학식 때 미

77) 서울 ‘지구촌학교’ 입학식 <https://blog.naver.com/rky5203/222571632276> 에서 검색 2021.12.25

리 나누어준 ‘교통안전’ 이라고 쓰여진 형광색 보호 덮개를 가방에 씌우고 입학식을 한다. 교실 입구 쪽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은 후 신발장에 정리한다. 선반의 자리마다 ‘발꿈치 신발의 뒤축을 맞추다.’ 라는 문장이 쓰여져 있다. 어려서부터 신발 정리 정돈의 습관을 교육하는 한 단면인 듯하다.<sup>78)</sup>

헤키잔 소학교 사례를 보면, 일본은 보통 4월에 입학식을 하는데, 입학식 간판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이 코스이다. 가나다순으로 반이 결정되고, 상급생이 와서 1학년 반에 데리고 가고, 부모는 강당에서 기다린다. 입학식은 교장 선생님 인사, 상급생의 환영 인사, 선생님 소개 등 평범하게 진행된다.<sup>79)</sup>



<그림 15> 일본 입학식(헤키찬소학교)  
출처:<https://cafe.naver.com/dalongnet/48861>

## (2) 중국 초등학교 입학식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교과서는 중국어, 수학, 영어, 영어회화 총 4권이 준비되어 있고, 교복도 나누어 받는데 한 벌씩만 지급이고, 여벌은 따로 구매해야 한다. 매주 월, 화, 수는 교복을 필수로 입어야 한다. 책가방

78) 일본초등학교, <https://blog.naver.com/seraphimhymn/222308549713> 에서 검색 2021.04.13.

79) 헤키찬소학교, <https://cafe.naver.com/dalongnet/48861> 에서 검색 2021.04.13.

도 나누어 주는데, 꼭 학교에서 준 책가방만 메고 다니라고 한다. 한 학급당 22명이고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 두 분이 정해진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은 아침 7시 50분까지 등교해서 오후 3시 35분까지이다. 중국은 도시별로 지역 특색 수업이 있는데 칭다오는 해양에 관련된 수업, 체스를 배우는 수업과 동아리 활동도 있다.<sup>80)</sup>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을 마치고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고, 학교 소개와 안내를 마치고 나면 귀가하여 가족과 축하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림 16> 난징부자묘초등학교 전통입학식  
bestkyunggo@xinsegaenews.com

2016년 9월 1일 난징부자묘초등학교 신입생 168명이 부자묘에 가서 전통 입학식 “카이비리(開筆禮)” 의식을 거행했다. “카이비리”는 부자묘초등학교 예절 교과과정 중 제1과이며 신입생들로 하여금 중국 전통 예의규범을 알게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sup>81)</sup> 2018년 8월 31일 베이징 제2 실험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카이비리” 예례로 인생 첫 번째의 중요한 의식으로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였다. 카이비리는 “치명리”라고도 불리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의 미간에 총명하기를 바라는 붉은 점을 찍었다. “카이비리”는 중국 고대에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과몽” 의식으로 주사(붉은

80) 칭다오 라이프, <https://blog.naver.com/geniousdm/222489029890> 에서 검색 2021.08.30.

81) 난징 부자묘초등학생 전통입학식 bestkyunggo@xinsegaenews.com 에서 검색 2021.12.21.

잉크)로 지혜를 여는 것은 “카이베리”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다양한 행사로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sup>82)</sup>

### (3) 독일의 그룬트슐레(Grundschule)의 입학식

아인슐룽(Einschulung) 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그룬트슐레(Grundschule)<sup>83)</sup> 입학식은 토요일에 진행한다. 입학식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고깔 모양의 선물 상자, 먹을 것과 깜짝 선물을 담은 슈튀테(Schultüte)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졸업하기 몇 주 전쯤 새로 산 학교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앞에서 런웨이를 하는데 입학식 때 그 가방도 꼭 챙겨야 한다. 입학식이 토요일에 진행되어 가족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



<그림 17> 독일의 그룬트슐레(Grundschule)의 입학식  
출처:<https://blog.naver.com/banim/222496318714>

슈튀테(Schultüte)라고도 불리는 주커튀테(Zuckertüte)는 설탕이라는 뜻의 주커(Zucker)와 봉투라는 뜻의 튜테(Tüte)의 합성어로 '설탕 봉투' 혹은 '설탕

82) 베이징 제2 실험 초등학교 입학식 <https://blog.naver.com/cgh0011/221351278224> 에서 검색 2021.12.25.

83) 독일입학식, <https://blog.naver.com/banim/222496318714> 에서 검색 2021.08.20.

고깔'이라 할 수 있다. 1800년대 초반 독일 동부 지역인 작센과 튀링겐에서 부터 시작된 오래된 전통이다. 달콤한 것이 귀했던 옛 시절, 부유층 사람들이 작은 고깔 모양의 종이봉투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담아 입학하는 아이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부터 주커튜테가 유래되어 독일 전역에서 자리매김 되었다.<sup>84)</sup>

#### (4) 베트남 재외 한국국제학교의 입학식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니는 종합 국제학교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모두 같이 입학식에 참여한다. 1학년, 7학년, 10학년 학생들과 재학생이 함께 축하해주는 전통이 있다. 교장 선생님의 입학 선언과 내빈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진 후엔 각 학년의 담임 선생님들과 교과 및 원어민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4교시 후 하교를 하지만 나머지 입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7교시에서 8교시 수업을 한다. 첫날부터 다양한 교과와 선생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다. 이것 역시 한국의 학교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외 한국국제학교이지만 한국 학생만 입학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과 베트남 가정, 한국과 중국 가정, 한국과 태국 가정 등 한국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둔 아이들,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아이들도 입학한다. 재외 한국국제학교는 한국 문화가 중심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85)</sup>

국내외 학교에서 진행되는 입학식을 살펴본 결과, 전북 무주군 설천초등학교, 남평중학교, 함평 영재교육원은 면접조사에서 살펴본 입학식과는 다른 특별한 입학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즉 기존의 일반적인 입학식 형태에서 한

84) 독일 초등학교 주커튜테 (brunch.co.kr) 에서 검색 2021.12.9.

85) 베트남 하노이 입학식, <https://if-blog.tistory.com/3554> 에서 검색 2021.08.20.

국 전통문화가 깃든 새로운 입학식의 절차와 의미를 더한 입학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문화와 특징 갖춘 입학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Ⅳ. 왕세자 입학례에 근거한 초등학교 입학식 제안

### 1. 사제관계를 맺는 절차의 재고

입학식의 절차에서 가장 뜻깊은 바는 무엇일지를 재고해보면 《왕세자입학도》의 절차 중에서 ‘왕복도’, ‘수폐도’에는 사제간의 예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사료 된다. 이 절차에서 학생은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고, 스승은 가르침을 허락하면서 공경과 존중의 예를 배우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학식 조사에 나타난 바를 보면, 입학식 절차에서는 ‘왕세자입학도’에 나타난 절차의 강점을 찾기가 어렵다. 입학을 하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제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제 간은 부모 관계 못지않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사주당이씨의 『태교신기』에도 아버지의 하룻밤의 역할, 어머니의 열달의 역할, 스승의 10년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를 보면 개인이 태어나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스승’의 역할이 부모와 같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학교에 처음으로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부모와 같은 스승을 만나 사제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그 의식이나 절차는 배움을 청하고 수락하는 과정에 내포된 사제간의 존중과 예우를 내적으로 심화시킬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왕세자입학도》와 현대 입학식 절차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형적인 절차를 통해 선생님께 배움을 청하고, 허락하는 절차를 도입해서 입학식의 절차에 한국 전통문화가 포함되는 모형이 구안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0〉 《왕세자입학도》와 현대 입학식 절차 비교

《왕세자입학도》	현대 입학식 절차
① 출궁의 ② 작헌의 ③ 왕복의 ④ 수폐의 ⑤ 입학의 ⑥ 수하의	① 개식사 ② 국민의례 ③ 입학 허가 선언 ④ 교장 선생님 말씀 ⑤ 재학생과 신입생 인사 ⑥ 담임선생님 발표와 교실 배정 ⑦ 교가 제창 ⑧ 폐식사

문헌고찰과 면접조사를 토대로 〈왕세자입학도〉와 현대 입학식 절차를 비교해 보면 〈표10〉과 같다. 또한 국내외 입학식 사례조사에서 살펴본 남평중학교와 함평 영재교육원의 입학식을 보면 ‘왕세자 입학례’의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이는 현대 입학식에 도입된 특별한 입학식으로 잘 적용되었다고 사료 된다. 이를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왕세자 입학례’에 근거하여 이미 특별한 전통 입학식을 행하고 있는 두 곳의 사례를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교하면 선생님께 배움을 청하고 허락을 받는 예와 감사함을 전하는 예로 차를 드리고 절을 올렸다. 또한, 함평 영재교육원에서는 선생님께서로부터 수업을 받는 중요한 절차까지 진행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학식에 한국의 문화가 담긴 절차가 포함된다면 새로운 입학식 모형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왕세자 입학례에 근거한 현대 입학식의 사례 비교

순서	왕세자 입학례	남평중학교	함평영재교육원
1	출궁의	밴드 추가	.
2	작헌의	세수 의식	.
3	왕복의	청원서(請願書)낭송 및 입학승인	세 차례 스승께 배움청함/입학허락
4	수폐의	속수례(束修禮)의식 및 진다례	사제간의 성실한 배움과 사랑의 가르침을 다짐으로 서로 짊을 함
5	입학의	.	명심보감, 스승과 학생낭독
6	수하의	신입생과 재학생상견례 (스승께 큰절)	.

## 2. 입학식을 위한 예복 착용

입학례의 주인공인 왕세자가 입학례 때 예복을 입는 절차가 내포된 의미는 크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거행하는 의식을 ‘예(禮)’로 표현했다. 예는 개인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적합한 행동규범을 제시함과 이를 실천함으로 상하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예복 착용은 필수적이었다. 예복(禮服)은 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히 예를 갖추는 때 입는 옷이다. 입학례 때 왕세자는 성균관에 도착하면서 학생복으로 갈아입고 입학식을 마칠 때까지 예복을 착용하고 사제간 예를 갖추었다.

작헌례를 거행할 때 왕세자가 ‘학생복(學生服)’을 갖추었다 ‘고 했는데, 왕세자는 이때 서연복인 공정책·곤룡포를 학생복으로 갈아입는다.

요즈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복장 준비는 학부모 면접조사의 내용에서 입학식 때 복장은 대부분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새 옷을 준비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립학교 입학생들은 자율 복장으로 입학식에 참여하고,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교복을 입고 입학식에 임한다. 국내 입학식의 사례중 전북 무주군 설천초등학교와 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전교생이 모두 한복을 입고 등교하는 특별한 시업식 및 입학식에 참여했다. 새로 만나는 담임 선생님과 유치원생을 포함한 전교생은 학년별로 통일해서 한복을 입었다. 이 한복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입학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한 학생의 마음가짐과 의미는 새로웠을 것이다. 의복은 우리의 몸가짐과 함께 마음가짐을 표현해준다. 초등학교 첫 입학식 때 예복을 갖추어 입음으로써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예를 표현하는 의식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왕세자도 학생복으로 갈아입고, 학생의 신분에서 입학례를 했듯이 한복을 착용하고 입학식을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입학식에 착용할 한복에 대해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복을 입학식 예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복(戰服)은 일상복 위에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옷으로 입학식 예복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 까치두루마기 위에 입었던 전복은 고려 때는 쾌자(快子)·답호 등의 이름으로 불려졌다. 쾌자와 비슷하지만, 소매 깃이 없고, 양쪽 깃이 맞닿도록 만들어진 조끼 형태의 옷으로 옆선과 뒤 중심선이 트인 조끼 형태의 긴 옷이다. 옆선과 뒤 중심선이 트여서 쾌자보다 조금 더 활동적인 옷이다.<sup>86)</sup>청색 전복 안에는 흰색의 일상복을 입고, 그 위에 편리하고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전복을 갖춰 입으면 일상복과도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예복이 될 수 있다.

86) 하상효, 전통 어린이 복식에 관한 연구 : 조선 후기의 복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25.

아래 왼쪽 <그림 18>은 전복 사진이고, 오른쪽 <그림 19>에서 학생은 청색의 전복을 착용하고, 스승은 붉은 자색의 전복을 갖춰 입은 경우이다.



<그림 18> 전복

출처: <https://blog.naver.com/cutex27/221716540956>



<그림 19> 전복 입은 학생과 스승

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

입학식에서 입학생이 머리에 유건을 쓰고, 예복으로 전복을 입음으로써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복을 입고, 머리에 유건을 쓰는 것은 <수폐의> 절차에서 왕세자가 착용했던 의관과 유사하다. 의관정제(衣冠整齊)란 말은 조상들의 의복과 삶에 담긴 의미로, 옷과 머리쓰개를 격식에 맞게 갖추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예복으로 복장을 바르게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옷과 머리쓰개를 모두 갖춰야 한다.

둘째, 쾌자도 입학식 예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0> 쾌자는 소매가 없는 겹옷으로 조선시대 무복인 동시에 정장에 가까운 옷이었다. 쾌자는 두루마기나 도포 등에 덧입는 옷으로 일종의 장식품과 같은 용도의 쓰임새이다. 입학식 예복으로 단정한 일상복 위에 쾌자를 입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오방장두루마기를 입학식 예복으로 제안한다. 오방장 두루마기는 다섯 가지(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색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색동두루마기인 까치두루마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옷은 어린이의 첫 생일인 돌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한다. 즉 색동은 한국인의 삶이 담긴 고유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으며, 한국의 사계절 자연 색채와 어우러진 대표적인 옷이다.



<그림 20> 쾌자

출처:<https://blog.naver.com/ygee/221192704893>



<그림 21> 오방장두루마기

출처:<https://blog.naver.com/ok-720/222384683489>



<그림 22> 색동두루마기

(까치두루마기)

출처:국립민속박물관

기쁜 날,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입학식 예복으로 손색이 없다. 머리에 남자는 복건을 쓰고, 여자는 배씨댕기를 하고 예복을 갖춰 입고 입학식 복장으로 활용된다면, 한국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바람직한 외형을 갖춘다고 본다.

### 3. 입학식의 축하 의례

조선 왕실에서는 입학식을 국가적인 큰 경사로 보았기에 입학례를 끝마치고, 다양한 식후 행사가 있었다. 이때 신하들은 국왕에게 치사(致謝)를 올리면서 경사를 축하했고, 국왕은 교서를 내려 화답하고 입학례에 참석한 관리와 성균관 유생들을 궁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상을 주었다. 또한, 왕

세자가 성장하여 성균관에서 입학식을 하는 기쁨을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누는 의미로 백성들에게는 사면령의 혜택이 주어졌다. 입학례를 마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절차가 바로 <수하도>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그날의 주인공으로 큰 축하를 받는다. 학교에서도 식전 행사로 선배들의 공연이나 마술 등 신입생을 위한 축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입생을 환영하는 의미로 교장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고, 장학금과 입학선물을 준비하는 학교도 있다. 또한,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가족, 친지와 외식을 하면서 즐거운 입학식 날을 맞이한다. <그림 23>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입학식 때 선배가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하면서 왕관을 직접 만든 왕관을 씌워주는 축하의례 모습이다. 선배의 축하 속에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짐하는 입학식의 예를 보였다. 또한 선배 학생과 교사들의 댄스 공연 정도는 이제는 기본이 되었고, 과거 운동장에 모여 일정한 형식이었던 입학식에서 각양각색의 입학식 축하 파티가 열리면서 신입생은 즐거운 학교생활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입학식의 축하 의례는 그 시대의 트렌드가 반영된 문화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림 23> 이태원초등학교 입학식 광경(2017.03.02)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417&aid=0000235094>

현재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과 입학식이 이루어졌다. 비대면으로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짝꿍이 없는 교실에서 진행된 입학식은 일생에 한 번 뿐이므로 입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는 학부모 면접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왕세자 입학례에서 축하 의례인 <수하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입학식 축하 행사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신입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돋우며, 기쁨을 줄 수 있는 교사나 선배들의 입학식 축하 공연은 물론 장학금과 선배들이 주는 입학선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덕담스티커를 주는 방법, 가족들과 입학 축하 모임 갖기 등 다양하게 구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순조 17년(1871년)에 제작된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례를 보여주는 《왕세자입학도》와 조선시대의 입학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태학지(太學志)』 등을 고찰하였고, 초등학교 입학식의 실태조사와 학부모 면접조사를 토대로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의 모형 세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스승께 배움을 청하고 허락을 받는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왕세자입학도》의 <왕복도> 절차에서는 스승에게 세 번 배움을 청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오늘날에는 정해진 학교에 배정받고, 입학하면서부터 저절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진다. ‘왕복도’의 의미를 본받아 사제간의 공경과 존중을 표현하는 의식으로 ‘배움을 청하는 예’가 도입된다면 사제관계의 중요성을 입학생은 물론 선생님과 학부모도 다시 깨닫게 될 것으로 본다.

‘왕복의’의 절차에는 세 번 청하였지만, 한 번의 간절한 청으로 각색하여 선생님께 배움을 청하는 예시이다.

<배움을 청하는 예(禮)>

입학생 : 저 ○○○ 는 년 월 일 선생님께 배움을 신청합니다.

선생님 :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로움으로 가르침을 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덕담

년 월 일

입학생 :

선생님 :

둘째, 스승에게 감사의 예로 ‘진다례’를 준비한다. 《왕세자입학도》에는 효명세자가 폐백이 든 광주리를 받은 다음 스승에게 두 번 절을 하고, 스승도 두 번 절을 하여 답배한다. 이러한 의식은 왕세자일지라도 스승에 대한 예우를 먼저 표현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남평중학교의 입학식 사례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우려낸 향기로운 차 한잔을 선생님께 드리는 진다의식은 <속수의> 절차에 근거한 절차이다. 차(茶)를 받은 교사가 신입생들에게 덕담을 주고 바른 자세와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모습, 특히 전체 학생이 스승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입학례를 마쳤다. 사제간의 존중과 감사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진다례의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진다례 절차〉

장소 : 강당 또는 교실

준비물 : 다관, 찻잔, 찻종받침, 다반

1. 다관에 미리 차를 준비해 둔다.
2.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을 뽑는다.(생년월일이 빠른 학생 대표 선정)
3. 남, 여 대표학생은 차를 따라 선생님께 드린다.  
(일동 감사의 절을 올린다)
4. 선생님의 덕담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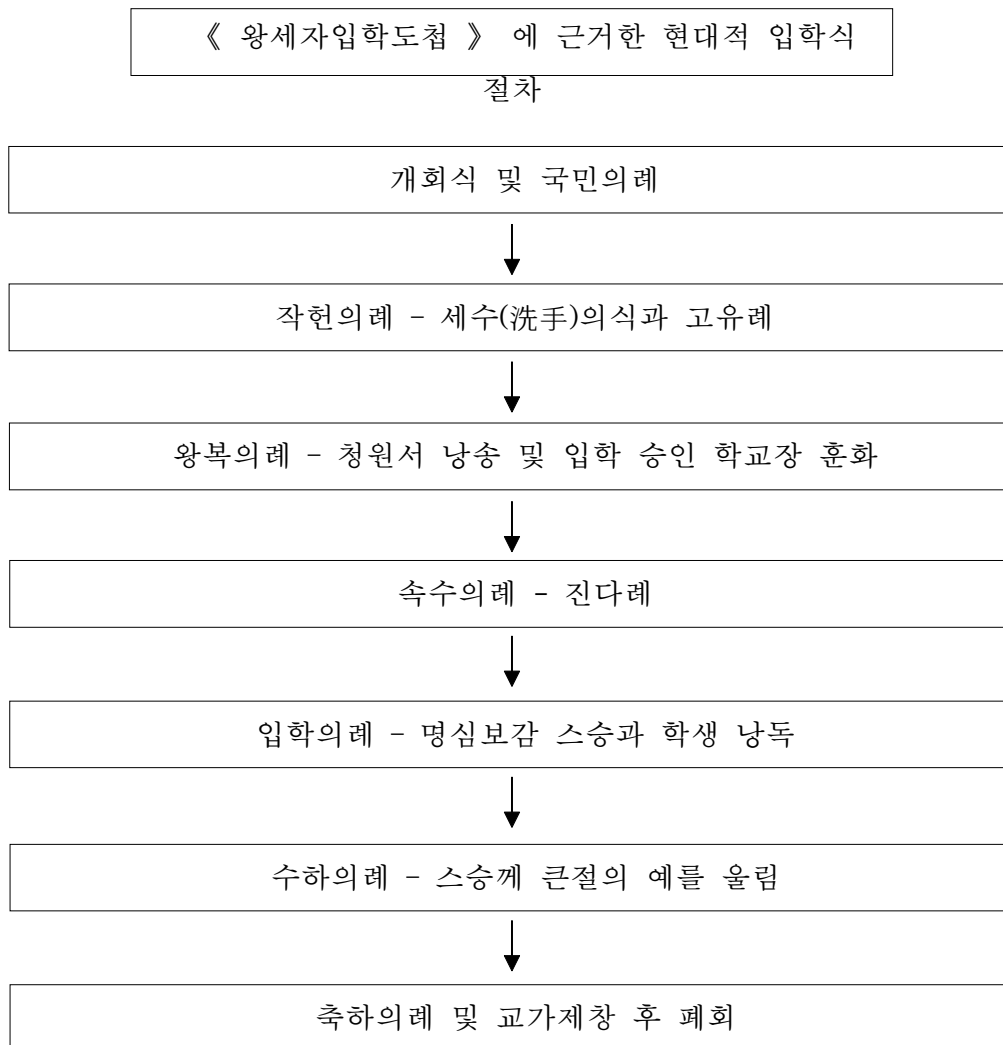
셋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복장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왕세자입학도》에는 왕세자가 성균관에 도착하여 학생복으로 갈아입고 학생의 신분으로 입학례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우리 고유의 한복을 착용하는 ‘복장의 예’가 도입된다면,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을 더욱 상징성 있게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1학년도 함평 영재교육원의 전통 입학식의 사례를 보면, 제자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예를 표현하는 의식으로 대표 학생들은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선비의 자세로 예를 갖추어 〈속수례〉에 참여했다. 입학식을 위한 예복을 착용하는 예(禮)는 다짐의 마음가짐과 바른 몸가짐을 표현한다. 우리 복식을 갖추어 입는 것은 예를 실천하는 의미와 더불어 학생들이 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한국문화가 담긴 새로운 입학식 모형에서 배움을 청하는 절차는 사제 간의 공경과 존중의 마음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참된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새로운 입학식의 모형연구로 첫째, 현재 진행되는 정형화된 입학식의 절차에 배움을 청하고 허락을 받는 〈왕복도〉의 의미를 담아 입학 허가서를 받는 절차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스승님께 드리는 예물로 정성껏 우리는 차 한잔을 올리고 스승님께

감사의 예를 진행하면서 사제 간의 예를 다하는 ‘진다례’ 절차를 통해 <수폐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한복을 중심으로 하는 의관을 착용하고, 입학식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24>는 한국문화를 반영한 입학식 절차의 예시이다.



<그림 24> 한국문화를 반영한 입학식 절차 예시

한국문화를 반영한 입학식을 하기전에 학부모와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전통 입학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 모의연습 시간을 갖는다. 한복을 미리 준비하여 큰절을 배우고, 차를 따르는 연습을 한다. 한국문화를 반영한 입학식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12〉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 모형

	입학식 순서	내용
1	개식사 (고유례)	고유례(告由禮) 의식으로 입학을 시작함을 알린다.
2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를 부른다.
3	몸과 마음 준비하기 (작헌의례)	손을 닦는 세수(洗手)의식으로 입학식에 참여하는 마음을 다짐한다.
4	배움청하기 (왕복의례)	“저 000는 선생님께 배움을 청합니다.” 하고 배움을 청한다.
5	가르침 허락하기 (왕복의례)	선생님은 사랑과 지혜로움으로 가르침을 허락한다.
6	선생님께 차(茶) 올리기 (속수의례)	대표학생은 미리 준비한 차(茶)를 선생님께 드리면서 감사함을 전한다.
7	가르침 말씀 낭송하기 (입학의례)	선생님과 학생은 명심보감 한소절을 낭독한다. 본격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이다.
8	선생님께 큰절하기 (수하의례)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예로 큰절을 한다. 선생님도 답례를 한다.
9	입학 축하공연 및 교가제창, 폐회	선배, 학부모의 축하공연의 시간을 갖고 교가를 부르고 입학식을 마친다.

위 <표 12>는 한국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입학식의 모형을 제시했다. 입학식 행사전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통 입학식에 대해 소개한후, 입학식 절차를 미리 예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입학식 절차 중에서 교실로 이동하여 담임선생님과 만남의 시간에서 배움을 청하는 예를 실행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 V. 결론 및 제언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입학식은 교육적 의례이자 가족들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주는 행사이다. 이러한 입학식이 전통사회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학식의 형태, 절차는 한국문화를 반영한 특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에 대한 문헌고찰과 더불어 현행 입학식의 실태조사, 학부모의 입학식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여 진행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왕세자 입학식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우리나라의 입학례로 만들어 실천한 것은 조선시대였다. 유교식 전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유교적 문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다. 즉 왕세자 입학식은 조선 왕실의 교육목적을 가진 왕실 행사였다. 효명세자의 <왕세자입학도>에 근거하여 입학례의 절차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입학례는 크게 출궁의(出宮儀) ▶ 작헌의(酌獻儀) ▶ 왕복의(往復儀) ▶ 수폐의(脩幣儀) ▶ 입학의(入學儀) ▶ 수하(受賀儀)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화폭 속 입학식의 풍경은 효명세자는 출궁을 시작으로 공자와 네 성인의 신위에 술잔을 올리는 ‘작헌의’를 마치고, 학생복을 갈아입고, 성균관 명륜당 대문 동쪽에 선다. 백비(白篚, 폐백을 담은 광주리로 저포(紵布, 모시) 3필, 주호(酒壺, 술병) 2말, 수안(修案, 포(脯)를 놓는 상) 5정(艇)을 왕세자 서쪽에 놓는다. <왕복의> 절차로 장명자(將命者)를 통해 왕세자는 배움을 청하고, 박사(博士)는 사양하는 절차를 세 번 반복한다. 사양한 뒤에 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허락한다. 이때 스승에게 예물을 드리는 <속수의> 절차를 마치고, 스승에게 교육을 받는 <입학의> 모습은 이 장면의 핵심 장면이다. 이때 스승은 동쪽에 앉아 책상 위에 책을 펴고 강의를 하고, 왕세자는 서쪽에 꿇어앉아 바닥에 엎드려 책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입학례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온 효명세자는 축하 인사를 받는 것으로 입학례를 마쳤다. 이러한 절차에서 학생이 되어 스승에게 갖춰야 할 예절을 실천하고, 학생의 신분으로 대우를 받았다. 연구자는 전통사회의 왕세자 입학례의 형식과 절차 등에서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한국문화가 담긴 입학식을 모색하는 근거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에서 치러진 각각의 의식과 절차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재 초등학교 교육의례인 입학식의 실태를 조사하여 ‘왕세자 입학례’를 모티브로 하여 한국의 전통문화가 깃든 초등학교 입학식 모형을 제안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입학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교사와 학교에 교육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오늘날 다양한 교육의례 행사 중 하나인 입학식의 절차에 한국문화가 깃든 우리의 입학식을 ‘왕세자 입학례’에 근거하여 새로운 의미와 절차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단, 본 연구의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의 사례가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학교 대상과 학부모 면접의 조사 내용이 부족하였다. 향후 다양한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입학식의 모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예산 및 교사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에서도 새로운 입학식의 모형이 실시되기를 바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입학식은 매년 3월 초 학교장 주관 아래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 학교 행사로 신입생을 환영하는 의식이다. 근대교육이 시작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관습적으로 이어온 정형화된 입학식에

한국 전통문화를 접목시켜 특별한 우리의 입학식 문화의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식을 연구했으나,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입학식 모형이 개발되어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역사회나 각 예절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단기 교육과정의 입학식에도 이러한 모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이후 입학식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 메타버스가 보편화되는 기술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입학식의 또 다른 형태와 절차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들 입학식에도 한국문화가 깃든 절차와 형식이 도입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근대교육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교의 입학식 사례 연구와 변천 연구 등도 수행되어야 한다. 교육의례로 졸업식도 입학식과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학교와 가정의 연계된 중요한 의례로 입학식과 졸업식 교육의례 모형이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경종실록(景宗實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보감(國朝寶鑑)』  
『고종실록(高宗實錄)』 19권  
『반중잡영(泮中雜詠)』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변통고(喪變通攷)』  
『세조실록(世祖實錄)』 10권  
『세종실록(世宗實錄)』 14권, 121권  
『속대전(續大典)』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순조실록(純祖實錄)』 19권, 20권  
『시강원지(侍講院志)』  
『영조실록(英祖實錄)』 97권  
『인조실록(仁祖實錄)』 8권  
『일성록(日省錄)』  
『주자가례(朱子家禮)』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춘관통고(春官通考)』

『태종실록(太宗實錄)』 5권, 25권

『태학지(太學志)』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孝明世子嘉禮都監儀軌)』

### 《단행본》

- 국립고궁박물관,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 국립고궁박물관, 2019.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연구조사보고서, 2011.
- 국역 태학지, 성균관대학교, 1994.
- 김명숙, 19세기 반외척세력의 정치동향-순조대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중심으로, 효명세자 연구, 두술, 2005.
- 김문식,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문헌과 해석 56, 태학사, 2011.
- 김문식, 왕세자 입학례, 문학동네, 2010.
-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교육, 김영사, 2003.
- 김문식·신병주,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김순관, 조선후기 궁중기록화 《왕세자입학도》의 제작기법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김지영 외 5인, 왕세자, 이극(貳極)의 자질과 지위를 공인받다.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3.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 박정혜 외 2인,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 지도, 《왕세자입학도》 영인본 및 해설서, 안그래픽스, 2005.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재 보존연구7』, 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과, 2010.
- 손명희,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 국립고궁박물관, 2019.

- 신재근, 《왕세자입학도》의 제작배경과 이본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2008.
- 육수화, 正祖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왕위계승교육,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11.
- 윤국일 옮김,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1998.
- 이원호, 조선왕조 왕세자교육, 조선시대 교육의연구, 믿음사, 2002.
- 이은주, 궁중기록화 속의 복식문화 읽기-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기록화를 중심으로, 朝儀士俗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고려대학교, 2001.
- 장서각, 경종왕세자 가례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장재천, 조선조 성균관교육과 유생문화, 아세아문화사, 2000.
- 장재천, 조선 성균관 교육문화, 교육과학사, 2012.
- 지두환, 순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9.
- 한영우, 왕세자입학도의 주인공 효명세자와 그의 입학식, 《왕세자입학도》 영인본 및 해설서, 안그라픽스, 2005.

#### 《논문》

- 김기현,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남기, 동궁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세자의 교육-『소현 동궁일기』부터 『숙종춘방일기』까지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22집, 2009, pp.309-337.

- 김문식, 군사 정조의 교육정책 연구, 민족문화 23, 2000.
- 김문식, 소현세자의 왕세자교육, 국학연구 1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1, pp.71-99.
- 김용재, 윤기(尹愔)의 『泮中雜詠』에 나타난 성균관(成均館) 재생(齋生)들의 생활상과 교육, 동방한문학 83권, 2020, pp.271-302.
- 김종률, 조선조의 왕세자교육제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김종원, 조선조 시강원의 교육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민길홍, 조선시대 궁중행사도Ⅱ,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문효세자 보양청계병-1784년 문효세자와 보양관의 상견례행사, 미술자료 80, 2011, pp.9-114.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박종배, 朝鮮時代 學校議禮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박혜인, 조선 후기 王世子 관련 宮中記錄畵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조선왕실의 왕세자 생활, 국립고궁박물관 학술연구용역보고서, 2010, pp.19-22.
- 손윤희, 이은주, 1817년 효명세자 입학례의 왕세자 복식고증, 문화재 46권 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pp.188-207.
- 손윤희, 조선후기 왕세자 입학례 복식고증,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손진선·주영애, 가족의례로서의 ‘입학식’에 관한 재고-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2021, p.200.
- 안인숙, 조선시대 왕세자교육에 대한 연구:正祖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오재길, 초등학교 학교행사문화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입학식, 조회, 운동회, 졸업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유송옥, 효명세자의 복식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16권, 한국무용예술학회, 2005, pp.111-128.
- 유재빈, 19세기 왕실의 기록과 정치-효명세자와 《기축진찬도》(1829)를 중심으로, 한국미술사교육학회 36, 2018, pp.105-132.
- 육수화, 조선시대 왕위계승교육의 변화양상, 동양고전연구 44집, 2, pp.12-15.
- 윤민경, 세도정치가 안동 김문의 정치적기반 : 국왕, 유력가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1, 2015, pp.179-239.
- 윤 정, 18세기 국왕의 ‘文治사상연구’ - 祖宗의 재인식과 ‘繼志述事’ 실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경은, 조선 초기 왕실의 엘리트 교육에 관한 고찰, 교육연구논총 제29권 제1호, 2008, pp.61-77.
- 이민아, 효명세자, 현종대 궁궐 영건의 정치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은주·임재영·홍나영, 왕세자출궁도의 복식연구 I:입학례를 중심으로, 복식 28호, 한국복식학회, 1996, pp.169-186.
- 이은주·임재영·홍나영, 왕세자출궁도의 복식연구 II: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31호, 한국복식학회, 1997, pp.47-60.
- 이종묵, 효명세자의 저술과 문학, 한국한시연구 10, 2002, pp.315-345.

- 이영철, 초등학교 학교행사의례의 교육적 의미:인천광역시교육청 우리학교  
알림방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임지수, 왕세자입학도 복원모사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장재천, 조선시대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례, 韓國思想과 文化 55권, 2010,  
pp.281-295.
- 전정연, 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 개발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희정,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 절차와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16.
- 조규동 외 3인, 의례(儀禮)의 교육적 의미에서 본 초등학교 졸업식,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권 2호, 2016, pp.105-126.
- 조문현, 초등학교 신입생 프로그램 개선연구 : 학교 문화로의 입문과정을 중심  
으로, 공주대학교 교육학술정보원, 1996, pp.27-43.
- 하상효, 전통 어린이 복식에 관한 연구 : 조선 후기의 복식을 중심으로, 중  
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한형주, 朝鮮 世宗代의 古制研究에 對한 考察, 역사학보 136, 1992, p.120.
- 한형주, 조선초기 왕세자의 국가의례 참여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30, 2009,  
pp.68-102.

#### 《인터넷 사이트》

-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  
 난징부자묘초등학교 전통입학식 [bestkyunggo@xinsegaenews.com](mailto:bestkyunggo@xinsegaenews.com)  
 남평중학교 전통입학식, 광주일보, <http://kwangju.co.kr/>

네이버 지식백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3234&cid=40942&categoryId=33383>  
독일입학식 <https://blog.naver.com/banim/222496318714>  
베이징 제2 실험 초등학교 입학식 <https://blog.naver.com/cgh0011/221351278224>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http://www.heritage.go.kr)  
문화재청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luvu>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설천초등학교입학식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3323>  
성균관홈페이지 <http://www.skkok.com>  
서울 ‘지구촌학교’ 개교식 및 입학식 <https://blog.naver.com/rky5203/222571632276>  
실록위키 <http://dh.aks.ac.kr/sillokwiki/>  
일본입학식 <https://blog.naver.com/seraphimhymn/22230854971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 <http://uigwe.museum.go.kr>  
칭다오라이프 <https://blog.naver.com/geniousdm/222489029890>  
하노이입학식, <https://if-blog.tistory.com/3554>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  
한국고전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4770>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한국학사전편찬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 <http://waks.aks.ac.kr/>  
함평영재교육전통입학식 <http://www.nbnnews.co.kr/news/>  
헤기찬입학식 <https://cafe.naver.com/dalongnet/48861>

## ABSTRACT

###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Entrance Ceremony Based on the Admission of Crown Prince Hyomyung

Son, Jin Sun

Korean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rts

Sungshin University

The entrance ceremony to take the first step in learning is of importance, which influences one's academic years from a kindergarten to a university and it gets significant in family life on that account.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the way of admission rites in the past that have had an impact on current entrance ceremony in terms of form and procedure. It also examines that modern entrance ceremony is necessary to find a way inheriting relative traditional rites.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a procedure and a meaning of the Crown Admission Rite in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relative materials of literature. In addition, a prototype has developed on the basis of a survey on an elementary school entrance ceremony these days and combines itself with traditional one, which would offer the tangible materials for institutes

where make an effort to adopt modern traditional entrance ceremony.

This is an album of paintings depicting the matriculation ceremony for Crown Prince Hyomyeong (1809-1830) entering Seonggyungwan, the National Confucian Academy. Although Hyomyeong was never actually educated at Seonggyungwan, a matriculation ceremony was held to publicize the fact that the future sovereign was also a student of Confucianism. This is one of the six paintings depicting the matriculation ceremony of Hyomyeong, who is the sole crown prince whose entrance to Seonggyungwan has been documented in painting.

According to 《Wangseja Ibhagdo》, the only documentary material for admission, starting with the <Chulgung-ui>, which leaves Changgyeonggung, Honghwamun and Donggung and moves to Sungkyunkwan. After arriving at Sungkyunkwan, a glass of wine is served at the shrine that enshrines Confucius and 4 other saints at the Daeseongjeon. The example of raising <Jagheon-ui>, <Wangbog-ui> asking the doctor to learn from the Daeseongjeon Hall to Myeongnyundang, <Supyeui> giving a gift to the doctor who accepted the request, <Iphag-ui> where the Crown Prince receives a class from the doctor at Myeongnyundang, and the final procedure, after completing all these ceremonies, returns to the palace and congratulates officials and servants in <Suhai>.

Admission as a beginning for the future and a means of promise is so pro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elicit further understanding.

The model infusing Korean entrance ceremony culture proposes the meaning and symbolism of the location it occurred, a process, an adequate dress, a social relationship formation, a celebration, and so forth.

Korean traditional culture such as Prince Entrance Ceremony would hopefully apply itself into the modern rite. Also it is important to mount budget for the event and increase the awareness, and thereby the newly suggested model of admission would be implemented at the institutes over boundaries onward.

The system of the entrance ceremony is required to be progressed, with a fatal pandemic sweeping over the nation and Metaverse spreading out. It is also necessary for researchers to introduce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entrance ceremonies infused with Korean culture.

## 부 록

[부록 1] 초등학교 교사대상 면접조사 참여동의서

[부록 2] 초등학교 교사대상 입학식 실태조사지

[부록 3]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참여동의서

[부록 4] 학부모 대상 초등학교 입학식에 대한 견해 면접조사지

[부록 1] 초등학교 교사대상 면접조사 참여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효명세자 입학례에 근거한 초등학교 입학식 연구’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본 면접 조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논문작성에만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메일, 전화 및 인터뷰에서 필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귀 학교의 입학식의 사례가 교육의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가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면접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9. 15.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 손진선

연락처 :010-3335-8643

-----  
면접조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면접조사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인터뷰 내용을 논문에 활용함.
2. 인터뷰의 기록을 위해 녹음하는 것을 허락함.
3. 녹음자료, 이메일 자료는 연구자의 논문 작성에만 활용함.

면접조사 참여자 : \_\_\_\_\_ 학교 \_\_\_\_\_ 년 월 일  
성명

[부록 2] 초등학교 교사 대상 입학식 실태조사지

1. 입학식 실태조사 (조사일 : )

No	질문 내용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학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학식의 실태조사입니다. 귀교의 입학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존 입학식 절차)
3	코로나19 이후 입학식의 절차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	입학식 때 교장선생님의 주된 훈화 말씀은 무엇입니까?
5	기존 입학식의 절차의 변형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6	조선시대 ‘왕세자 입학례’의 의미와 절차를 바탕으로 전통문화가 깃든 입학식에 대해 실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 향후 입학식(교육의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록 3]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참여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효명세자 입학례에 근거한 초등학교 입학식 연구’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본 면접조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논문작성에만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전화 및 인터뷰에서 필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입학식에 대한 의견은 교육의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가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면접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9. 15.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 손진선

연락처:010-3335-8643

면접 조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면접조사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인터뷰 내용을 논문에 활용함.
2. 인터뷰의 기록을 위해 녹음하는 것을 허락함.
3. 녹음자료, 인터뷰 자료는 연구자의 논문 작성에만 활용함.

년 월 일

면접조사 참여자 :

학교

성명

[부록 4] 학부모 대상 초등학교 입학식에 대한 견해 면접조사 질문지

1. 면접조사 (조사일 : )

No	질문 내용
1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입학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입학식 때 학부모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3	입학식 때 입는 학생의 복장을 따로 준비하십니까?
4	입학식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십니까?
5	입학식 때 다짐하는 특별한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6	코로나19 이후 바뀌어진 입학식의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기존 입학식과 다른 특성있는 입학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2. 향후 입학식(교육의례)에 대한 학부모의 자유로운 의견